1. INT. 창고안-NIGHT(프롤로그 시이퀀스)

조그만 백열등 하나만이 커다랗고 어두운 창고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다. 창고 문이 열리며 열명의 80년대 초반의 일제식 고등학교 교복을 껄렁하게 입은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후크 단추를 풀고 구식 책가방을 창고 구석에 던진다. 툭 툭 툭 먼지를 일으키며 차례로 구석에 쳐 박힌다. 그리고 멋있게 각이 잡힌 고등학교 평창모가 비행접시처럼 날아와 가방 위로 떨어진다. 잘 길들여진 워커 한 켤레가 먼지가 쌓여있는 걸상 위에 턱 올려지고 단단히 끈을 묶기 시작한다. 이번엔 누군가의 손이 마치 권투 선수처럼 잔뜩 힘을 주어 천천히 붕대를 감는다. 워커 끈을 단단히 발목에 감아 양 끝을 당기자 쒸익-하며 가죽을 스치는 소리가 난다. 이번엔 누군가가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어 허공에 대고 휙휙 휘둘러 보자 붕-붕-하는 소리가 난다. 붕대를 감은 손이 움켰다 폈다를 반복해서 손에 꽉 끼는지 확인한다. 중간이 조금 깎여나간 야구 배트의 끝이 화면 전방에 언뜻 보이고 포커스가 빨리 뒤 쪽으로 이동하면 교복을 뜯듯이 풀어제키자 금박의 단추가 바닥으로 투투툭 떨어진다. 붕대를 감은 손이 자전거 체인을 한 손에 잡고 다른 쪽 끝을 좍 당겨본다. 그리고 가슴팍으로 이동한 손이 명찰을 잡아 부욱-하고 실바느질 부분을 떼내어 버린다. 자전거 체인을 든 손이 체인을 힘껏 휘두르자 차르륵 하고 책상다리에 휘감키며 나뭇살을 파먹는다.

2. EXT. 부둣가-NIGHT(프롤로그 시이퀀스)

이윽고 창고의 낡고 커다란 쇠문이 열리면 열명 정도의 워커발과 운동화가 우르르 먼지가 쌓인 문지방을 넘어 빠른 걸음으로 나간다. 각자의 손에 무기를 든 열 명의 고등학생 무리가 멀리서 부둣가 창고 건물들 사이로 돌아 나온다. 이때 카메라가 반대 쪽으로 퀵 팬하면 부두의 낡은 컨테이너와 굵은 전선의 다발이 곳곳에 쌓여있는 장소에 다른 이십 여명 정도의 남녀 고등학생 무리들이 우르르 다가오는 게 보인다. 다가오던 패거리가 상대를 발견하고 서서히 걸음을 멈춘다. 상대방도 역시 달리던 발을 풀더니 터벅터벅 다가가 상대 앞에 선다. 어둠 속에서 잔뜩 긴장 한 채 7~8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서 있는 두 무리의 모습이 강한 실루엣 속에서 어깨의 윤곽만 드러나 보인다. 상대편 녀석들의 손에는 오토바이 체인과 멍키스패너 등이 들려있다. 이때, 숫자가 많은 무리의 중에서 7명의 교복을 입은 (나름대로 껄렁해 보이는)여학생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상대편에 서 있는 남자 녀석들이 같잖다는 듯이 씨익-웃는다. 여학생들 중 하나가 주둥이를 움직이며 뭔가를 짝짝 씹고 있다가 힐끗 쳐다보고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온다. 상대편 녀석들이 긴장한다. 이어 갑자기 씹고 있던 뭔가를 반대편 녀석들의 면상을 향해 훅-내뱉는다. 조각난 면도날들이 순간적으로 어두운 허공 속을 반짝이며 날아가 한 녀석의 얼굴에 박힌다. 맨 앞에 서 있던 녀석이 얼굴을 감싸 쥐며 악-하고 비명을 지른다. 이와 동시에 나머지 녀석들은 각자가 들고 있던 무기들을 휘두르며 고함소리와 함께 앞으로 돌진한다. 허공에 쇠파이프와 야구배트, 체인이 높이 쳐들어지며 상대편의 면상과 어깻죽지를 향해 내려 꽂히는 순간.(갑자기 화면이 뚝. 멈춘다.-퀵 dolly in & 프리즈 프레임)

상택(N.A.)
(성인의 목소리)
이건 다 거짓말이다.

얼굴에 면도날이 박힌 녀석이 얼굴을 만지던 손을 펴보자 갈라진 손바닥에서 피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하려는 순간 화면이 프리즈 프레임 되면...

오토바이 체인이건 칠공주의 면도날이건 말로만 들었지 한번도
그 걸로 싸우는 걸 본적은 없다.

다시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화면 속에서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휘둘러진 오토바이 체인이 한 녀석의 목에 휘감키는 순간에 화면이 다시 프리즈 프레임.

이런 이야기는 모두들 학창시절에 한 가닥 했다고 떠들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전설처럼 지어낸 이야기다.

다시 타격음들과 함께 이번에는 먼저 한 녀석의 등을 때린 멍키스패너가 다른 녀석의 관자놀이를 때리려는 순간의 프리즈 프레임.

그런 친구들은 전설을 추억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나처럼...

계속하여 격렬한 패싸움이 이어지는 모습이 LS로 보이다가 전체 동작이 뚝 멈춘다. 그러나 저 멀리서 돌아가는 등대의 불 빛은 여전히 바다 위를 비추며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이제부터 내가 하는 내 친구들의 이야기는 모두...사실이다.

SLOW FADE TO WHITE

3. EXT. 주택가 동내길-DAY(타이틀 시이퀀스)

연기가 가득한 하얀 화면 위로 노스탤지어를 불러 일으킬 음악과 함께 타이틀이 뜨기 시작한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얀 연기가 서서히 엷어지며 그 속에서 차츰 형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카메라에 바짝 붙어 있던 소독차의 분무구가 차와 함께 멀어져 간다. 느린 화면으로 소독차가 하얀 연기를 뿜으며 골목을 따라가면 화면의 양 쪽에서 하나 둘씩 70년대 말 복장의 아이들이 나타나 소독차가 뿜어내는 하얀 연기 속으로 사라지듯 뛰어간다. 타이틀과 음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독차의 전방에서 샷을 잡아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는 70년대 말의 산복도로 가옥들에서 당시 여름 복장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튀어 나와 소독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두거나 아이들은 흥분한 모습으로 소독차를 향해 달려온다. 카메라가 소독차의 분무구 측면을 따라 이동하며 연기 속에서 고함을 치며 열심히 쫓아 오는 초등학생과 또래의 20명 가량의 아이들의 모습을 훑어준다.

4. EXT. 시장통 골목길-DAY(타이틀 시이퀀스)

부감 또는 헬기 샷으로 주택가 골목을 지나 시장거리로 접어드는 소독차와 함께 이를 쫓는 아이들...그리고 70대 말의 영도 산복도로의 한 동내 전경이 보여진다. 카메라가 다시 소독차 분무기의 POV 샷이 되면 그 속에서 고함 치며 뛰어오는 아이들 중 몇 명이 상점의 가판대 쪽으로 달려간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 채듯 가판위의 떡이나 과일 과자등을 하나씩 집어들고 소독연기 속으로 사라진다. 그들 중 한 여자아이는 주인 아저씨에게 팔목을 잡히고 만다.

5. EXT. 언덕길-DAY(타이틀 시이퀀스)

소독차가 언덕 길을 넘어오자 아이들이 따라온다. 차가 언덕 아래로 내려오고 여전히 아이들이 우르르 그 꽁무니를 쫓아 뛰어 내려간다. 소독차를 따라가던 아이들 중 몇 몇이 숨이 찬지 뜀박질을 멈추고 만다.

6. EXT. 하천 다리 위-DAY(타이틀 시이퀀스)

소독차가 조그만 하천의 다리 위를 건너 간다. 그 위를 함께 따라가던 아이들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7. EXT. 굴다리 밑-DAY(타이틀 시이퀀스)

소독차가 굴다리를 지날때는 7~8명의 아이들만이 헐떡이며 뒤를 따른다.

8. EXT. 큰길가-DAY(타이틀 시이퀀스)

마지막으로 소독차가 재법 빠른 속력으로 큰길로 접어들며 소독 분무기의 연기도 차츰 약해진다. 차가 차츰 멀리 사라진다. 그리곤 소독차를 마지막으로 쫓아온 동네 꼬마들 세명의 모습이 하얀 연기속에서 드러난다. 세 녀석은 얼굴이 잔뜩 상기 된 채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서 있다. 소독 연기가 차츰 걷히고 숨을 헐떡이는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자신들이 대견한 양 서로를 쳐다본다. 그들 중 특히 개구장이 처럼 보이고 아래 턱이 좀 큰 준석이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보여 주며 싱긋 웃는다. 이번엔 머리카락이 놀놀하고 피부가 탈색 된 것 처럼 하얀 동수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무우 한단을 들어 보인다. 그리고 계란형의 얼굴을 한 상택의 손을 쳐다보자 고등어 한마리가 쥐어져 있는게 보인다. 준석과 동수가 웃기 시작하자 상택이 자신도 씩-웃고 마는데 뒤를 돌아보자 키가 작고 얼굴이 좀 못생긴 녀석(중호) 하나가 자신의 머리통보다 훨씬 큰 수박 한덩어리를 안은 채 헐떡 거리고 뛰어 오는 모습이 보인다. 중호가 땀을 삐적삐적 흘리며 다가와 자랑스런 얼굴로 나머지 녀석들을 쳐다본다. 모두들 전쟁터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전리품을 차지한 듯 상기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웃기 시작한다. 멀리서 녀석들이 갤갤거리며 아직 남아있는 소독연기 속에서 다시 왔던 길을 뒤돌아 가는 모습이 보인다. 음악과 함께 타이틀이 끝난다.

9. INT. 준석의 집(마루)-NIGHT

준석아버지(김두한 스타일)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귀금속 목걸이 귀걸이로 치장한 준석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깔끔하게 교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넘긴 준석이와 함께 현관문을 나온다. 밖에서 토요다 크라운 승용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던 검은 양복과 까만 선그라스의 사내들 십수명이 일제히 상체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한다.

상택(V.O.)
...즈그 아부지는 옛날에 부산에서 대빵 이었다 안카드나.

준석의 아버지가 차에 오르기 전에 부하들을 보고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원권 다발을 꺼내어 공중에 확- 뿌려준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부하들이 갑자기 돌변해 만원짜리를 줍기위해 난리법석을 떤다. 준석과 엄마도 마찬가지다.

준석이가 그라는데 기분이 좋으믄 만원짜리를 공중에 확-뿌린단다.
그라문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란다.

10. INT. 상택의 집(아침밥상)-DAY

약간 짱구머리를 하고 눈이 똑똑해 보이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로 보이는 상택의 여동생과 아주 심한 1학년 또래의 짱구머리 막내(규택)가 밥을 먹다가 말고 동그란 눈을 뜨고 이야기를 듣고있다.

신애(상택여동생)
(믿어지질 않는다는 듯이)
진짜가?

상택
  (당연하다는 듯이)
하모. 옛날에 부산에서 제일 싸움을 잘했는데 얼마나 돈이 많겠노?

묵묵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스 운전기사 복장의 상택아버지가 좀 황당하단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본다. 역시 기가차다는 표정이다.

신애
그라믄 10장 줏으믄 지가 다 가지도 돼나? 즈그 엄마가 도로 안뺏아
가나?

상택
즈그 엄마도 줍는데...

규택
와~ 준석이 행님 좋겠다. 그자?

규택의 말에 아버지와 엄마의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눈길이 다시 한번 교차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먹히자 우쭐하던 상택이 갑자기 뭔가 생각 난듯

상택
참! 아부지, 오늘 내하고 약속 한거 잊지 마이소.

상택아버지
뭐?

11. INT. 준석의 집-DAY

마루에 4인용 밥상 4개가 담아져 있고 덩치가 좋거나 좀 인상이 험한 사내들 12명이 우루루 식사를 하고 있다. 다들 일체 잡담을 하지 않고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준석의 엄마(아까와는 다른 수수한 느낌)가 다시 전기밥솥에서 공기가득 밥을 담아 몸집이 큰 사내에게 건네자 머릴 조아리며 밥을 받아든다. 네개의 밥상들 중 상석에 50을 족히 넘긴 런닝 차림의 준석아버지와 준석이 앉아 있다. 준석은 이런 광경에 익숙한 양 밥을 먹지만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는다. 묵묵히 식사를 하던 준석의 아버지가

준석아버지
   (낮게 깔은 목소리로)
순천에 언제 가노?

그러자 일제히 화들짝 동작을 멈춘다. 그들중 제일 나이가 들어보이고 눈 위에 깊은 상처가 있는 남자가

눈칼자욱
(화들짝 다급하게 밥을 삼키고는)
오..오늘 갑니다. 행님!

준석의 아버지가 숭늉을 한모금 마시고는

준석아버지

고생 했으니까 잘 해주라.

모두들
(합창을 하듯 큰 소리로)
예! 행님!

준석이 모른 척 계속 밥을 먹는다.

12. INT. 중호의 집(아파트)-DAY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고 뚱뚱하지만 아주 깐깐하게 생긴 중호엄마가 커다란 백을 메고 안방에서 나오며

중호엄마
(매일 하는 잔소리를 하듯)
다른집 아아들은 공부를 잘해가 상장도 받아오고 무슨 대회
나가가꼬 입선인가 가작인가도 하고 그란다는데...

중호의 엄마가 잠근 안방문 열쇠를 커다란 도자기 속에 집어 넣고는 현관으로 향하며

빌어묵을 저 새끼는 방학때 모자란 공부나 좀 할 생각은 안하고
우데로 그래 밤낮 쏘댕기노..쏘댕기기를...

중호가 방에서 팬티만 입고 늘어져라 자고 있다. 인상을 쓰고 있는 얼굴이 잠이 완전히 든 것 같지는 않다.

아이고...자슥하나 나아가꼬 내가 호강은 커녕 자슥 뒤치닥거리
하다가 가지싶다...쯔쯔쯔...

방에서 누워있던 중호가 눈을 감은 채 짜증섞인 목소리로 버럭 고함을 치듯

중호
학교가믄 아아들이 뭐라하는 지 아나?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엄마가 고개를 들자

우리 엄마가 그라는데 느그 엄마 밀수꾼이라 카드라. 그란다.
그라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겠나?

중호엄마
(발끈하여)
저..빌어묵을 자슥이 입 달릿다고 말하는 것좀 보소. 즈그가 내
밀수 하는 거 봤나?

중호방에서 대꾸가 없자

가가 물어봐라! 그 미친년들이 내가 밀수 하는거 봤는가? 그 쌍년들을
고마 입을 잡아 찢어삐야 되겄네...확 고마...

중호가 더 이상 대꾸가 없자 중호 엄마가 벌건 얼굴을 씰룩거리며

고마 쳐자고 일나가 밥 묵어라!

중호 엄마가 문을 쾅 닫고 나간다. 방에서 누워있던 중호가 문이 닫히고 열쇠가 잠기는 소리를 확인 하고는 눈을 반짝 뜬다.

CUT TO

장난기 가득한 표정의 팬티 바람으로 마루로 나온 중호가 아까 엄마가 열쇠를 넣어 둔 도자기 항아리를 뒤져 열쇠를 찾아낸다.

CUT TO

안방문이 열리며 이런 일이 익숙한 양 중호가 안방에 들어온다. 방에는 상자들을 비롯해 여러가지 일제, 미제 가전제품과 양품점에서나 보이는 고급 옷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중호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여기저기를 훑어보며 안방을 서성거린다. 그러다가 TV 옆의 뭔가를 발견하곤 걸음을 멈춘다.

13. INT. 장의사(동수의 집)-DAY

유리 창문에 쓰여진 장의사라는 큰 글씨의 그림자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수 아버지의 여윈 얼굴에 걸쳐 그늘을 만들고 있다. 동수 아버지는 장례식때 쓰는 노란색 조등을 하나씩 접어 상자에 넣고 있고 동수는 그 옆에 앉아 시신의 발에 신기는 코가 뾰족한 버선을 두개씩 겹쳐 비닐 봉지에 담고 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이 묵묵히 일을 하는데 누군가 미닫이 유리 창문을 톡톡 친다. 동수가 힐끗 보자 중호와 준석이 글자 사이로 보이고 나오라는 손짓을 한다. 동수가 아버지를 한번 쳐다볼 뿐 계속 일을 한다. 중호가 다시 창문을 톡톡 치자 동수가 다시 쳐다본다. 중호가 유리창에 얼굴을 붙여 코와 입을 찌그려뜨린다. 난처한 표정이던 동수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만다.

동수아버지
(순한 목소리로)
나가 봐라. 친구들 왔는데.

동수가 좀 난처한 표정이 되어 머릴 긁적이자

아부지 혼자 해도 된다. 가라...

동수가 아버지를 쳐다본다.

14. EXT. 장의사 앞 길가-DAY

멀리서 장의사 문이 열리며 동수가 나오고 열린 문 틈 사이로 두 녀석이 인사를 한다. 그리곤 세명이서 예정이나 된 듯 어디론가 뛰어 간다.

15. EXT. 조그만 바닷가-DAY

영도의 횟집 언덕 밑에 위치한 조그만 바닷가. 모래대신 자갈들이 조그만 해변을 덮고 있으며 바닷물에는 여름의 오후를 맞아 동네 아이들 수십 명 나와 멱을 감고 있다. 70년대 후반의 물놀이 기구라고는 태권브이나 마징가가 그려진 좀 조잡스러운 것들이고 놀고 있는 아이들도 대부분 까맣게 그을러 천진 난만한 모습들이다. 여자애들 중에서는 귀까지 덮는 분홍색 물 모자에 커다란 플라스틱 꽃이 달린 것도 보인다. 카메라는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놀고 있는 모습들 몇 개의 CU에서 LS로 빠져 아직 자갈밭에 앉아 있는 준석, 동수 그리고 커다란 구식 수경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호를 잡는다.

중호
(진지하게 따지듯)
뭐가? 그라문 그정도도 안 빠르문 우째 금메달을 땄겠노? 저번에
혼자 수영 해가꼬 일본 까지 갔능거 모르나?

동수
그거는 멀리 간거지. 그라고 옆에서 배들이 다 지키줏다 아이가?
그라고 그거는 물 위에서 헤엄친거 아이가.

중호
그라믄 물 밑에서 사람이 우째 숨을 쉬노? 사람은 물 위에서
헤엄치는 걸로 따지야지.

동수
그라니까 상대가 안 된다니까.

중호
뭐가? 뭐가 상대가 안되노? 어짜피 누가 빠른가가 중요 한거지.
니는 사람들 이야기 하는 거 안들어 봤나? 사람들이 뭐때메
아시아의 물개, 아시아의 물개 그라겠노?

동수
그거야 사람이 그정도 하니까 그런거지.

중호
(참 답답하단 듯이)
(준석을 쳐다보며) 준석아! 니는 누가 빠를 거 같노?

준석
(햇살과 더위에 짜증이 난다는 듯이)
...뭐가?

중호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하고 바다거북이하고?

준석이 물끄러미 중호와 동수를 쳐다본다. 여전히 심각한 표정들이다.

(계속 심각하게) 둘이서 헤엄치기 시합하믄?

준석
(시큰둥하게)
몰라.

중호가 좀 실망스런 표정이 되는데

상택이 온다 했나?

중호와 동수가 이제야 자신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는지 깨달은 양

중호
(좀 찝찝한 표정이 되어)
올 때가 훨씬 지났는데...혹시 못 구한거 아이가?

동수
그냥 우리끼리...

준석
(자리에서 일어나며)
온다!

동수와 중호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먼 발치를 쳐다본다. 멀리서 뭔가 시커먼 것이 보일 듯 말듯 다가온다. 세 녀석의 표정이 밝아진다. 다시 반대편을 비추자 시커먼 대형 고무튜브 하나가 굴러 오고있다. 세 녀석이 우르르 그쪽으로 달려간다. 상택이 자신의 키 보다도 훨씬 큰 대형 튜브를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굴려 오고 있다.

16. EXT. 바다위-DAY

저물어 가는 햇살이 바다 위에 오렌지색 광선을 뿜고 있다. 네 녀석들이 하나씩 푸~하며 바닷속에서 물위로 고개를 내민다. 화면을 부감 샷으로 잡으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대형튜브로 열심히 헤엄을 쳐온다. 준석 동수 상택 중호의 순으로 튜브에 도달하고 다들 튜브 위로 올라 앉는다. 아이들 넷이 올라 앉지만 튜브는 워낙 커서 안정감을 준다. 근처의 다른 아이들 몇몇이 자신들도 끼어보려 튜브에 손을 대 보지만

중호
(주먹을 들어 보이며)
저리 안가나 새끼야! 가라 임마!

다른 아이들이 마지못해 멀어지고 그들 중 한 녀석이 넷에게 주먹 엿을 먹이고 저만치 도망간다.

저 새끼가...확!

그러나 따라가진 않고 물만 튀기고 만다. 서쪽으로 지는 해가 더욱 녀석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인다. 다들 놀기가 지친 듯 그냥 튜브 위에 가만히 앉아 있다. 준석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해가 떨어지는 하늘을 쳐다본다. 마치 아련한 세상을 보는 듯 참으로 행복한 표정이 된다. 상택이 준석의 그런 모습을 보다가 자신의 팔을 뒤로하여 가볍게 물장구를 쳐본다. 동수는 고개를 돌려 바다 끝을 바라본다. 중호는 튜브의 길게 튀어나온 공기 주입구 꼭지를 만지작 거리다가 고추를 잡듯 손에 쥐어서 딸딸이 치듯 흉내를 낸다. 다들 키들 거린다. 그리곤 넷이서 잠시 동안 아무말 없이 앉아있는 동안 대형튜브도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을 뿐이다.

중호

어제..우리 엄마가 일본에서 테레비 녹음기 가지왔드라.

동수
테레비 녹음기? 그기 뭐고?

중호
녹음기 처럼 테레비를 녹음할수 있는 거.

상택
꽁까지 마라, 임마! 세상에 그런 기 어데 있노?

중호
참~나 미치겠네. 진짜다 임마! 진짜 테레비 녹음기 맞다니까.

준석
야- 세상이 그런기 있으믄 방송국 다 망하겠다. 전우 같은 거
다 녹음해가 보고 그라믄...

동수
그래....맞다.

중호
아이다. 진짜다. 그라믄 느그 내캉 내기 할래?

아이들의 잡담이 들릴 듯 말듯 멀어지며 화면이 점점 넓어진다. 멀리서 샷을 잡으면 해변가에서 차츰 멀어져 가는 녀석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친다. 멀리서 녀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다. 멀리서 뱃고동 소리가 들려온다.

17. INT. 중호집 안방-DAY

중호
(자신 만만한 목소리로)
봐라!

화면에는 SONY의 마크가 뚜렷히 박힌 당시 가장 처음 가정용으로 출시된 VHS BETA MAX형태의 VCR이 가득 비친다. 나머지 세 녀석이 눈이 동그란 채 이를 쳐다볼 뿐 잠시 말이 없다. 은색의 커다란 VCR이 첨단의 전자제품임을 뽐내듯 칼라 TV옆에 자리를 잡고 있다.

상택이 니 그 튜브 인자 내꺼다.

모두들 큰 일 났다는 듯이 상택의 얼굴을 쳐다본다.

상택
(찝찝한 표정이 되어)
이기 진짜 녹음기 처럼 되는 지 봐야지...

CUT TO

테레비의 조그만 스피커에선 서양 여자의 자지러지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온다. TV의 양쪽으로 네 녀석이 넋을 잃고 나란히 앉아 있다. 녀석들은 눈을 깜박거림도 잊은 채 빨갛게 볼이 달아올라 포르노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신음소리의 강도로 보아 하드코아 포르노이다.) 한참을 그 누구도 말이 없더니

중호
느그...여자 저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나?

모두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중호를 쳐다보다가

상택
벌바!

중호
(한심하단 듯이) 빙시야. 벌바는 영어고...(한수 가르쳐 주듯) 저거를
바로 `월경'이라 카는거다.

준석
월경? 그기 뭐고?

중호
(무식함을 비웃는 듯)
우리 사촌 누나 보는 잡지에서 봤는데...맨날 저거 이야기 밖에 없드라...

동수
그라문 보지가 월경이가?

중호
응. 어른들은 보지라고 안하고 월경이라칸다.

다들 한수 배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중호가 다소 의기 양양한 표정이 되더니

느그 딴거도 보이주까?

다들 볼이 빨간 채 중호만 쳐다본다.

18. EXT. 초등학교 문방구 앞-DAY

문방구 앞에 달랑 설치된 흑백의 조그만 모니터에 설치된 오트론 전자 오락(전자 오락기의 원조)을 하고 있는 한 아이에게 중호가 바싹 다가간다. 그리곤 뭐라고 귓속말을 하자

아이
월경사진? 그기 뭔데?

CUT TO

중호의 안내로 아까 이야기를 하던 아이와 함께 골목으로 들어온다. 골목 입구엔 준석이 망을 보고 서 있다. 그곳엔 이미 한 아이가 뭔가를 호주머니에 넣고 상택에게 200원을 건네준다. 이번엔 중호가 데려온 아이가 상택 앞에 선다.

상택
어떤거 살래?

상택이 아이 앞에 PLAY BOY책을 펼쳐준다. 녀석의 눈이 휘둥그래 진다.

빨리 골라라. 어떤거 살래?

녀석이 구경을 하는 동안 동수가 가위를 들고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잘라 준다는 폼을 잡는다.

중호
(센타포드를 길게 펼쳐 보이며)
이거 어떻노?

아이의 눈이 더욱 휘둥그래 진다.

아이
이..이거는 얼만데?

동수
그거는 비싸다. 하나 밖에 없는 거라서 이천원은 주야 된다.

아이
이..이천원?

중호가 센타포드를 접어 넣으며

중호
싫으믄 관두라...

아이
아..아이다. 집에 가서 돈 좀 가지오께.

CUT TO

아이가 볼이 달아오른 채 골목을 뛰어 나오는데 입구에 있던 준석이 아이를 부른다. 아이가 쭈삣쭈삣 준석에게 다가간다.

준석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니 누구한테 말하믄 알제?

아이가 약간 겁을 먹은 듯 고개를 끄덕인다.

19. EXT. 육교 아래-DAY

녀석들이 육교 아래의 자판이 모여있는 곳에서 열심히 떡볶이를 먹고있다. 녀석들이 허겁지겁 먹어대는 동안 50이 넘고 찌들고 무식하게 생긴 주인아줌마는 열심히 눈으로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떡볶이의

숫자를 세느라 정신이 없다. 아이들은 마치 아줌마를 헷갈리게 하려는 듯 두 세 개씩 한꺼번에 입에 넣기도 한다. 어느 순간 모두들 먹기를 마치고 조그만 포크를 내려 놓는다. 아줌마의 핑핑 돌던 눈이 멈춘다.

중호
얼맙니꺼?

아줌마
(좀 헷갈리는 듯한 표정으로)
느그가 묵은기...(손가락으로 셈을 하며) 52개 아이가...그라이까네...

중호
(잽싸게 말을 받아 좀 답답하단 표정으로)
아줌마 계산 못하능교? 이거 한개 삽십원 아잉교?

아줌마
그..그렇지 30원.

중호
그라문 삼이는 육하고 오삼은 구하니까 구백육십원아이요.

동수
(슬며시 거들듯)
그래...맞다 구백육십원. 오십이 곱하기 삼십원 하문...

중호가 천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주며

중호
사십원 남은거는 한개 더 묵어도 되지요?

아줌마는 뭔가 석연찮은 표정이지만 고개를 끄덕인다. 중호가 날름 두개를 더 입에 쑤셔넣는다. 그리곤 예의 바른 척 인사를 한다.

아줌마 많이 파이소. 잘묵었...

이때, 중호가 고개를 드는데 아줌마가 뭔가에 놀란듯 경악하는 표정이 된다. 중호와 다른 녀석들도 덩달아 눈이 동그래 진다. 그러자 누군가가 고함을 치듯 노란차다~하고 외치고 아이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본다. 노란색의 구청 트럭이 새마을 모자를 쓴 건장한 남자들 4명을 뒤에 태우고 이쪽을 향해 달려온다. 아이들이 다시 고개를 돌리자 이미 주변의 노점상들은 고함을 치며 아수라장이 되어 자판을 들고 튀고, 물건을 챙겨 넣는 등 정신이 없다. 이윽고 급정거한 노란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자판을 걷어 차고 물건들을 뒤집어 엎기 시작한다. 아이들도 겁에 질려 뒤로 물런난다. 남자들은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드는 아줌마와 할머니들을 내팽개치듯이 뿌리치고 리어카와 자판들을 닥치는 데로 차에 싣기 시작한다. 리어카 하나를 발로 차자 자판에 있던 과일들이 바닥에 굴러 흩어진다. 주인인 듯한 영감이 남자에게 달려들지만 이내 힘에 밀려 떡 복이 자판으로 넘어진다. 넘어진 연탄 화로에서 굴러 나온 연탄이 구멍마다에서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바닥을 굴러 아이들 앞으로 온다. 아이들이 마치 전쟁터를 구경하듯 놀라고 참참한 표정이다. 아이들 눈 하나하나에 구청직원의 움직임과 노점 상인들의 악다구니가 느린 화면으로 가득 들어온다.

FADE OUT
FADE IN

20. EXT. 선착장 길가-DAY

네녀석이 좀 시무룩한 표정으로 조그만 배들이 정박해 있는 부둣길을 걷고 있다.

중호
완전히 도둑놈들이네...아까 보이까 넘어진 할배는 잘 걷지도
몬하는 거 같더라. 그 새끼들 다 때리 직이야 되는데, 그자?

동수
즈그도 다 시키니까 그라는 거 아이겠나?

중호
그라믄 그냥 하지마라 하믄 되지 뭐 때메 다 때리 부수노?
즈그가 무슨 깡패가?

무심히 말을 내뱉은 중호가 자신도 모르게 아차-하고 다른 준석을 쳐다본다.

상택
(조심스럽게)
깡패하고 저거하고는 다르지...

중호와 다른 녀석들이 준석의 눈치를 살피며 서먹한 분위기가 되는데 마침 옆을 지나던 검은 색 그라나다 승용차가 녀석들의 옆에 선다. 아이들도 가던 길을 잠시 멈추는데 창문이 열리며 준석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던 눈칼자욱의 모습이 보인다.

눈칼자욱
준석아!

다른 녀석들은 찔끔하는 표정이 되고 준석이 그 쪽으로 다가간다.

집에 가는 길이다. 타라.

준석
집에 안갑니더.

눈칼자욱
그래. 그라믄 더 놀다가 온나. (뒤를 돌아보며) 참 형두행님!
저 아가 큰행님 아들내밉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중반의 콧수염을 기르고 매눈을 한 사내가 선그라스를 벗고 준석을 쳐다본다. 준석과 눈이 마주친다. 뒤에 있던 녀석들이 목을 길게 빼서 쳐다본다.

콧수염
니 이름이 뭐꼬?

준석
이준석입니더.

콧수염
준석이...또 보자. (눈칼자욱을 향해) 가자.

그라나다 승용차가 부웅~하고 사라지자 준석에게로 세녀석이 다가온다.

동수
(호기심이 생긴 듯)
누...고?

준석
깡패.

다들 다시 찔끔 하는데 중호가 영 민망한 표정이 된다.

21. INT. 장난감 가게-DAY

간단한 운동기구 및 장난감을 파는 가게 안으로 네 녀석이 들어온다. 녀석들이 장난감이 진열된 각각의 통로 쪽으로 흩어진다. 미리 보아둔게 있었는지 중호는 쪼르륵 달려가 나무봉 두개를 가느다란 쇠사슬로 이어놓은 쌍절곤을 집어 든다. 쌍절곤에는 조잡한 흘림 글씨로 `이소룡'이라고 새겨져 있다. 중호의 얼굴에 기쁨에 찬 미소가 번진다.

CUT TO

준석과 상택이 함께 가게 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뭘 고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것 저것을 고르고 있던 동수가 좀 비싸 보이는 칼 하나를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선 바지춤에 쓱 집어넣는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상택과 눈이 마주친다. 상택이 마치 자신이 도둑질을 한 양 얼굴이 굳는다. 두 사람이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만 보다가 상택이 먼저 고개를 돌려 모른 척 한다. 상택이 슬그머니 자리를 딴 곳으로 옮기고 마는데...동수가 상택의 옆에 있던 준석에게 다가오며

동수(V.O.)
준석아!

준석이 돌아보자 동수가 굳은 얼굴을 한 채 재크나이프를 들고 있다. 준석이 멍하게 동수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재크나이프가 준석의 옆구리를 푹 쑤신다. 준석과 상택이 동시에 어?!하고 놀라자 동수가 웃으며 다시 칼을 뺀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 끝을 칼끝에다 대고 힘을 주자 칼날이 손잡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 (찌르면 도금칠한 플라스틱 칼날이 손잡이 속의 스프링을 밀고 들어가도록 해 놓은 장난감 칼이다.) 그제서야 미소를 짓는 준석이 동수에게서 장난감 칼을 받아 든다. 신기한 듯 칼끝을 몇 번 눌러보다가 혼자서 쌍절곤을 휘두르며 쇼를 하고 있는 중호에게 다가간다.

준석
(장난으로 무섭게)
한판 하자.

중호가 준석의 손에 쥔 칼을 보고는 잠시 놀라다가

중호
좋다! 덤비라!

중호가 호요~하는 야릇한 기합과 함께 휙휙휙-마구잡이로 쌍절곤을 돌리는데 요리조리 피하던 준석이 날렵하게 그 틈을 비집고 중호의 복부를 푹-쑤신다. 중호가 돌리기를 멈추고 윽-하며 내려다보자 칼날이 배에 다 들어갔다. 중호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으아~`하고 금방 죽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나머지 녀석들을 킬킬대며 웃는다.

FADE OUT
FADE IN

22. EXT. 육교아래-DAY

지난번 처럼 노란차가 와서 자판이며 리어커들을 차에 싣고 있다. 상인들이 여전히 말리고 부탁해 보지만 속수무책으로 차에 모두 실어 버린다. 이를 먼 발치서 지켜보고 있던 네 녀석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들어온다. 다들 비장한 표정이 되어 눈치를 살피고 있다.

준석
가자!

준석의 말이 떨어지자 녀석들이 골목을 빠져 나간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중호가 칠성 사이다 병을 나발불고 몇모금 더 마신다.

CUT TO

구청 직원들이 한창 실랑이를 벌이며 자판과 리어커를 싣고 있다. 카메라가 차 뒤쪽으로 이동하자 상택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트럭의 열린 주유구 속으로 잔뜩 인상을 쓰며 오줌을 누고 있다. 부르르 떨며 오줌누기를 마친듯 자리를 떠나자 계속 사이다를 들이키고 있던 중호와 교대한다. 이제 막 차에 실을 건 다 실었는지 구청직원들이 울부짖는 상인들을 뿌리치고 하나 둘씩 트럭 위로 올라탄다. 나머지 녀석들이 중호에게 빨리 끝내라고 눈짓을 해 보지만 중호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계속 나오는 오줌을 멈추지 못한다. 이윽고 차가 부르릉 소리를 내자 중호가 아슬아슬하게 주유구에서 잠지를 뺀다. 시동이 걸린 차가 움직이자 녀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본다. 녀석들의 기대와는 달리 차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다음 장소를 향해 이동한다. 지켜보던 녀석들이 차를 따라 뛰기 시작한다. 차가 대로로 접어들기 위해 비교적 큰 골목을 빠져 나가는 동안 녀석들이 열심히 뒤쫒는다. 차는 계속 잘도 달린다. 녀석들이 죽을 힘을 다해 뛰어 보지만 차와의 거리는 멀어져만 간다.

중호
  (숨을 헐떡이며)
우째 된거고?

상택
(역시 숨을 헐떡이며)
몰라...

그런데 잠시후 트럭이 크르릉. 크릉...소리를 내며 멈추어 선다. 녀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뛰던 걸음을 멈춘다. 트럭의 운전사가 다시 시동을 걸어 보지만 키익-키익-소리만 날 뿐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영문을 모르는 운전사가 차에서 내린다. 그리곤 뒤를 돌아다보다가 이맛살을 찌푸린다. 먼 발치에서 뒷걸음을 치며 네 녀석이 트럭을 향해 욕을 하며 주먹 엿을 먹이고들 있다. 트럭 위에 탄 남자들이 우르르 내리자 녀석들이 도망을 친다.

23. EXT. 영도다리-황혼

녀석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영도다리 위의 인도와 차도를 픽스샷으로 잡고 있던 프레임속으로 하나 둘씩 등장한다. 앞서가는 중호는 연신 쌍절봉을 휘두르며 요상한 기합을 내고 그 뒤의 동수는 아까 그 칼이 그렇게 신기한지 계속 그 끝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보며 걷고 있고 이번엔 준석과 상택이 심각하게 대화를 하며 걷고 있다.

상택
(좀 달아올라)
...우째서? 그라믄 지금 당장 전쟁하지 뭐때메 안하노? 니는 테레비에
통계 같은 거 나오는 거 안봤나? 숫자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훨씬
신식무기를 가짓다 아이가?

준석
(뭘 모른다는 듯이 한심하단 어투로)
빙시야! 그거는 박대통령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런거지. 다 우리 안심
시킬라꼬 나오는 거 모르나? 지금 북한하고 딱 붙으믄 박살 난다니까.
니 북한 특공대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 하는지 아나? 그라고 쏘련에서
울매나 무기를 많이 주는데...

상택
우리는? 우리도 미국에서 무기 많이 준다 아이가?...

둘의 아야기가 이어지며 차츰 카메라에서 멀어진다. 중호가 한판 해보자며 동수를 야루다가 그만 쌍절곤이 동수의 이마를 때리고 만다. 화가 난 동수를 중호를 잡으로 가고 중호는 도망친다. 자갈치 너머로 지는 해가 다리 위를 온통 붉게 물들였고 녀석들이 다리 위의 언덕너머로 서서히 사라진다. 녀석들이 다리의 언덕길을 넘고 나면 화면을 덮고 있던 음악의 변화와 함께 인도 옆의 차도에 달리던 승용차들(1978년의 택시와 차가용 그리고 트럭들)과 멀리 보이는 빌딩을 비롯한 주변의 풍경들이 서서히 5년이 지난 1983년의 차들이 다리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과 멀리선 높은 빌딩 몇개가 더 세워진 모습으로 바뀐다. 다음씬과 연결...

24. EXT. 영도다리-황혼

이전씬과 연결하여 똑 같은 프레임에서 다리 위의 차들과 주변이 바뀌고 나면 다리의 반대편 언덕에서부터 까만 모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차츰 거리가 가까워 지며 이제는 고등학생으로 변하여 금박이 달린 단추와 까만 평창모를 쓴 준석과 상택 그리고 동수와 중호의 모습이 보인다. 상택을 제외하곤 다들 좀 껄렁한 스타일로 평창모를 한껏 눌러 최대한 각을 잡았고 교복바지는 밑단 폭이 좁은데 여전히 키가 작은 중호의 바지는 거의 당꼬 바지처럼 딱 달라 붙었다. 밤색 뿔테 안경을 낀 상택을 제외하곤 모두 후크 단추를 풀었고 중호는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애써 기른 머리를 앞가르마 비슷하게 타고 교복 위에 교련복을 걸쳐 입었다.

중호
...그라이까 오늘 나오는 디빈져 리더 그 딸래미가 사실은 즈그반
부반장 이거덩...공부도 쫌 하는데..뭐 하기사 우리도 상택이가
있으니까...

상택
내가 뭐?

중호
있다아이가? 잘치는 놈은 잘치는 놈 끼리, 잘노는 놈은 잘노는 놈
끼리,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 잘하는 놈끼리 뭐 그런거...

준석
마!

중호
와?

준석
오늘 니가 가자해서 가는 거니까 괜히 딴아들하고 시비 붙지 마라이.

중호
내가 무슨...즈그가 먼저 안 건들믄 내가 뭐할라고 설칠거고.

동수
짜슥아, 저번에도 니가 먼저 병 들었다메?

중호
아이다. 사실은 나도 그때 급해가꼬 병인줄 알고 딱 들었는데
탁주병인기라. 탁주병. 프라스틱으로 만든 거 있다 아이가? 퍼런거?
와~ 그때 진짜 쪽말리데...

나머지 녀석들이 기가찬지 웃는다.

25. EXT. 남항여상 교문-DAY

축, 남항여자고등학교 제21회 개교 기념일 이라고 쓰여진 프랑카드 아래로 잔뜩 껄렁거리며 들어서는 중호와 상택의 무리가 보이고 다른 학교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교문을 들어선다. 그들 중 몇몇은 꽃다발을 들고 있고 다른 남학생들 중 몇몇이 준석이 패거리를 알아 모는 양 힐끔 거리며 자기들 끼리 수근거리는 모습도 보인다. 교문 입구에서는 가슴에 안내라고 분홍 깃을 단 본교 여학생들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한다. 중호는 흐뭇한 표정이고 상택은 좀 어색한 표정이다.

26. INT. 남항여고 체육관-DAY

체육관에 마련된 공연장 무대 위에는 그룹 디빈져 제2회 공연이라고 쓰여 있고 객석에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시끌벅적 자기들끼리 장난도 치고 웃기도 하며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 단상의 커튼 뒤로는 마지막 튜닝을 하느라 기타소리와 전자 오르간 소리가 불규칙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학생들 사이사이로 잔뜩 경계를 눈초리를 번득이며 서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무대 바로 오른쪽 아래에는 7명의 다른 학교 놈상 녀석들이 주변을 아랑곳 않고 자기들 끼리 히히덕거리고 있는데 그둘중 빵모자를 눌러쓰고 인상이 좀 독해 보이는 녀석 하나가 자기네 무리들 앞에서 마이클 잭슨의 뒤로 가는 흉내를 내 보이고 있다. 중간에 자리 잡은 중호네 패거리도 이를 지켜 보는데 특히 중호가 아니꼽단 표정을 지으며

중호
저 씨발놈들 청학공고 새끼들 아이가...노는 꼴이 완전히
양아치 행님들이네...(준석을 힐끗 보고는) 조용히 시키까?

준석이 대답대신 픽-웃는다. 중호가 혼자 짜증이 나는 듯 계속 눈을 부라리는데 마침 튜닝 소리가 멎고 무대 위로 깔끔하게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한다.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자 스피커에서 마이크 소음이 울려 퍼지고 장내의 웅성거림이 줄어든다.

여학생1
먼저...저희 남항여고 21회 개교 기념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학생1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자 객석에서는 짝짝짝 박수가 터져 나오고 아까 마이클 잭슨 흉내를 내던 녀석이 큰 소리로 고마운 줄 알믄 됐다 고마 하고 썰렁한 농담을 외친다. 그리곤 자신들끼리 키득거리자 이를 보는 중호가 애가 달아

중호
저...빙신겉은 새끼들이...

여학생1
그럼 이제부터 저희 학예발표전의 하일라이트인 5인조 그룹사운드
디빈져의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손으로 무대 쪽을 가리키며) 소개 합니다! 그룹 디빈져~

와~하는 함성을 포함한 박수소리와 함께 서서히 무대가 열리며 그룹 디빈져의 퍼스트 기타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연주곡은 스콜피온스의 HOLIDAY이다. 장내는 흥분이 감돌기 시작하고 자신이 신이 난 중호가 옆에 앉은 상택을 쿡 찌르며

중호
오르간 치는 딸아가 부반장이다.

좀 길다 싶은 전주가 울려 퍼지는 동안 객석의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다. 디빈져 멤버들은 모두 사복을 입었는데 나름대로 8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캐쥬얼 스타일 들이다. 각각의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과 객석의 사람들(중호네 무리와 빵모자 무리들의 각각)이 번갈아 카메라에 잡히는데 상택은 전자 올갠을 치는 여학생에게 눈길을 준다. 똑똑하게 생기고 얼굴 생김새가 꽤 귀하게 큰 느낌을 준다. 그냥 차분하게 연주를 하고 있다. 준석의 시선은 가운데 서서 도리우찌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학생에게 꽂혀 있다. 이윽고 보컬이 시작될 순서가 되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학생(진숙)이 몇발 앞으로 나오며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한다. 한쪽 눈을 거의 가리는 헤어스타일을 한 채 목소리도 좋지만 발음도 꽤 훌륭하다. 중호가 다시 상택을 툭 치며

중호
(의미 심장한 미소를 띠우며)
베이스 치는 딸래미 봐봐! 저기 내가 찝은 거다.

상택의 눈이 베이스를 치는 키가 큰 여학생을 보더니 이내 진숙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상택의 얼굴이 꽤 감동받는 것 처럼 보이는데 준석과 동수의 시선도 진숙에게로 고정되어 있다. 연주 음악이 차츰 고조되고 진숙의 노래도 차츰 톤이 높아 가며 그와 함께 드럼 주자의 스틱을 움직이는 손놀림도 빨라 지는데...

DISOLVE FROM
DISOLVE TO

27. INT. 상택의 방-NIGHT

전씬의 드럼스틱에서 책상을 치고 있는 연필로 오버랩 되며 카메라가 dolly out하면 상택이 구식 녹음기에서 흘러 나오는 HOLIDAY음악에 맞추어 열심히 책상 모서리를 두들기고 있다. 눈은 수학정석을 향해 있지만 입으로는 노래를 따라 부른다. 이때

신애(O.S.)
오빠야!

상택이 고개를 돌리자 이제 중학생의 단발 머리를 한 여동생이 문을 열고 서 있다.

밥무라!

28. INT. 상택의 집 안방-NIGHT

단란한 저녁 밥상에 상택의 다섯 식구가 둘러 앉아 있다. 다들 묵묵히 식사를 하는데 엄마는 뭐가 좋은지 혼자 생글거리며 얼굴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그런 엄마를 보고 있던 상택이

상택
엄마, 무슨 일 있나?

상택엄마
(뿌듯한 미소를 머금으며)
인자...우리 집 생긴다. 오늘 아파트 계약 했다.

다들 식사를 멈추고 좀 놀란 표정을 짓자

상택아버지
아직 이사 갈라문 몇 달 더 있어야 된다.

신애
방이 몇갠데?

상택엄마
3개.

신애
내 방 있나?

상택엄마
공부는 규택이 하고 같이 하고 잠은 혼자 자믄 되지.

신애
(매우 실망스런 표정을 지으며)
또? 그라믄 똑같네 뭐...우리반에 다른 아아들은 다...

상택아버지
오빠야는 인자 좀 있으믄 고3 아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서울로
대학교 가믄 니방 금방 생긴다 아이가?

신애
씨~...그래도...

상택이 자못 어깨가 무거워지는 듯 어버지를 한번 쳐다본다.

29. INT. 상택과 중호의 교실-DAY

발음이 썩 훌륭하지 않지만 매우 깐깐해 보이는 영어 선생님이 영어책을 한 줄 읽고 또 자신이 번역하여 주며 교탁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 상택의 영어책은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지고 사전에서 찾은 주석들이 깨알 같이 쓰여져 있다. 그런데 키가 작으면서도 맨 뒷자리에 짝도 없이(1인1책상 이지만 두 줄을 나란히 붙여 놓은 것) 혼자 앉아 있는 중호는 앞에 앉은 키 큰 녀석이 방패라도 되는 듯 책상에 바짝 엎드려 자를 대고 칼로 정성껏 잘라 10개가 그려진 회수권 다발1장을 교묘하게 11개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영어선생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거...to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의
예문을 한번 말해 볼 사람?

학생들이 잔뜩 긴장 한 채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38번!

38번 학생이 일어난다. 중호의 5칸 앞자리다.

예문 말해봐!

38번
잘...잘 모르겠는데예..

영어선생
잘 몰라? 그라믄 잘은 몰라도 되니까 아는데까지 얘기 해봐!

38번
(사색이 되어서는)
와...완전히 모르겠습니다.

영어선생
(PVC파이프로 된 몽둥이를 들어 보이며)
자랑이다 짜슥아! 양말 벗고 교탁 위에 꿇어 앉아! 그 뒤엣놈!

뒷학생1
(포기 한듯)
저...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맨 뒷자리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중호가 화들짝 놀란다.

영어선생
니도 양말 벗고...그 뒤에!

뒷학생2
어...히 새드...잇 머스트...비 투....어...

영어선생
됐어! 니도 꿇어 앉고...그 뒤!

중호가 고개를 바싹 숙인 채 자신이 앉아 있는 책상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낑낑거리며 의자와 책상의 조금씩 위치를 옆으로 옮기려 애를 쓰고 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다리를 부들부들 떨기까지 한다.

뒷학생3
모르겠습니다.

영어선생
뒤!

다음 학생이 일어날 때 쯤이 되자 중호가 낑깅대며 거의 책상을 그 옆줄로 옮겨 갔다. 그리곤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뒷놈 말고 그 옆엣 놈 말해봐!

중호의 바로 앞에 앉은 녀석이 일어난다. 중호가 죽상이 되어 다시 바들거리며 책상을 원위치 시키는데

맨 뒤에 쥐같은 새끼!

중호가 죽은 듯 동작을 멈춘다.

이사 댕긴다고 욕 본다...니 부터 나와!

CUT TO

PVC파이프 몽둥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횡-횡-하는 바람소리가 나며 중호의 맨발 바닥을 때릴 때는 쫙-쫙-하는 소리가 난다. 중호가 고통을 참느라 이를 악무는 모습을 상택도 보기 안타까운지 눈을 찔끔거린다.

30. INT. 준석과 동수의 교실-DAY

머리가 좀 벗겨지고 아주 야비하게 생긴 40대 중반의 선생님이 교단 아래에서 한손으로 한 녀석의 뺨을 세게 움켜잡고 나머지 한 손을 높이 쳐들어 쨕-쨕-소리가 복도까지 퍼져 나가도록 뺨을 후려 갈긴다. 수차례를 가격한 후 볼따구를 놓자 맞은 녀석이 얼얼함 속에서도 인사를 하고 뒤로 물런난다. 그 뒤로 7명의 학생들이 뭘 크게 잘못한 양 고개를 숙이고 구석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중에 준석과 동수의 모습이 보인다. 선생은 얼굴이 달아올라 매우 흥분해 있지만 애써 안 그런 척 자제하는 모습이다. 다음 녀석이 도살장에 들어서듯 선생 앞으로 가자 역시 한 손으로 뺨따귀를 움켜쥔다.

야비한선생
(목소리를 덜덜 떨며)
아부지 뭐하시노?

학생1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회...회사에 다니십니더...

야비한선생
(잔뜩 눈을 부라리며)
회사? 그래 이 빌어묵을 놈아! 느그 아부지는 회사에서 직장상사한테
굽신거리가메 니 공부시키는데 니는 시험을 30점도 못받나? 어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생의 큰 손바닥이 사정없이 학생의 면상에 내리 꽂힌다. 쫙-쫙-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순서를 기다리는 녀석들이 움찔한다.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준석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다. 두번째 녀석이 코에서 피를 흘리며 뒤로 무른다. 꾸벅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번에는 동수 차례다. 선생이 힘껏 동수의 뺨을 움켜쥔다.

(뺨을 잡고서 벼르며)
아부지 뭐하시노?

` 동수
장의삽니다.

야비한선생
장의사? (뺨을 쥐고 흔들며) 그래 이놈아! 느그 아부지는 죽은 사람
염해가메 오만고생을 다 하는데 니는 공부를 이꼬라지로 하나? 어이?

이번에도 역시 선생의 풀스윙이 동수의 면상을 강타한다. 다섯대를 얻어맞은 동수가 비틀거리며 그냥 뒤로 무르자 선생이 다시 동수의 뺨을 잡고 몇 대를 더 때린다. 그리곤 놓아준다. 이번에는 동수가 잊지 않고 꾸벅 인사를 한다. 이번엔 준석이가 앞으로 온다. 눈알까지 벌겋게 충혈된 선생이 흥분해서 씩씩거리며 준석의 볼을 잡는다.

아부지 뭐하시노?

준석이 대답을 않는다. 선생이 쥐고 있는 뺨을 흔들어 댄다.

말해라 아부지 뭐하시노?

준석
건달입니다.

선생이 순간 동작을 멈춘다. 다른 학생들도 찔끔하는 표정이 된다. 선생이 준석을 노려보지만 준석이 눈길을 피하지 않는다. 갑자기 선생이 손바닥으로 준석의 얼굴을 갈긴다. 계속 연타로 갈기지만 준석이 이를 악물고 그대로 맞고 있다. 그러자 선생이 분에 못이겨 준석의 뺨을 주먹으로 연타로 갈기기 시작한다. 그래도 준석이 끄덕을 않자 왕년의 한가닥을 자랑하듯 준석을 발로 거둬 넘어뜨린다.이제는 넘어진 준석을 발로 차기 시작한다. 준석이 말없이 선생의 발길질을 받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보기가 괴로운지 이맛살을 찌푸리는데...

야비한선생
(씩씩거리며 발길질을 하며)
좋겠다! 너그 아부지 건달이라서 좋겠어...이 쌔빠질 놈아! 느그
애비한테 가가꼬...

이때, 준석이 벌떡 일어선다. 잔뜩 충혈된 눈으로 선생을 노려본다. 살기가 느껴진다. 선생과 학생들이 모두 뻥찌는 표정이 되는데

준석
(악이 바쳐 이를 악다물로)
누가 좋다 했습니까?

준석이 화가 난듯 살기어린 눈으로 쳐다보자 선생이 얼어 붙어 아무말을 못한다. 준석이 성큼성큼 자기 자리로 들어가며

동수야! 가자!

앞에 서 있던 동수 역시 준석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큼성큼 따라 들어간다. 그리곤 둘다 자신의 자리로 가서 책가방을 챙긴다. 선생이 얼이 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지켜만 볼 뿐 아무말을 하지 못한다. 준석과 동수가 교실 뒷문을 열고 휙- 나가버린다. 학생들과 선생이 두사람이 나간 뒷문을 한참동안 말없이 쳐다보다가 나머지 학생들 쪽으로 눈을 돌려

야비한선생
쟈...즈그 아버지가....진짜...건달이가?

학생들
(일제히)
예-.

눈을 몇번 꿈벅거리더니

야비한선생
쟈아는? 점마도 건달이가?

잠시들 가만히 있다가 맨 앞줄에 앉은 촉새처럼 생긴 녀석 하나가

촉새학생
(얼굴에 야릇한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학교 통인데예.

야비한선생
통?

촉새학생
제일 잘 치는데예.

야비한선생
그라믄 따라나간 놈은? 부하가?

촉새학생
아니예. 부통인데예.

야비한선생

부통?

촉새학생
예.

선생이 입맛이 쓴지 찝찝한 표정이 된다. 학생들은 왠지 고소하단 표정들을 짓고 있는데

실수하신 건데예.

야비한선생
뭐가?

촉새학생
준석이 때린거예.

선생이 더욱 찝찝한 표정이 되어 얼굴이 상기되기 까지 한다. 그러다 갑자기 문득 뭔가를 깨닭은 듯

야비한선생
(촉새학생에게 다가가며)
그란데...니는 뭔데 건방지구로 내가 실수했느니 뭐했느니...
요런 싸가지 없는 자슥이요...

야비한 선생이 분풀이를 하듯 촉새학생을 마구 때리기 시작한다.

31. INT. 달리는 버스 안-DAY

차창으로 부산 도로의 전경이 보여 지다가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차장에게 토큰과 회수권을 내고 차에 오르는데 그 중에 중호의 모습이 보인다. 중호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차장에게 어긋나게 잘라진 회수권을 내밀로 오르지만 차장을 흘겨 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차를 두리번 거리던 중호가 버스 앞 쪽의 엔진박스 위에 앉아 있는 상택을 발견하고 그 옆에 비집고 들어가 앉는다. 상택이 단어장을 들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중호
뭐~꼬, 치아라 고마!

상택이 중호에게 눈짓을 한다. 중호가 운전석을 쳐다보자 상택의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하고 있다. 놀라서 벌떡 일어선다.

(얼떨결에) 아부지 안녕하십니까?

상택아버지
(뒤를 잠시 돌아보고는)
오~ 그래 중호 오랜만이네...부모님들 다 안녕하시제?

중호
(대충 마무리를 하려는 듯)
예...예...

중호가 다시 상택의 옆에 앉는다. 그리곤 귀에 바싹 입을 대고는

요번주 일요일날 뭐하노?

상택
와?

중호
준석이 집에 안갈래?

상택
준석이 글마...저번주에 수업받다가...

중호
(상택의 말을 자르며)
도루코라고 한살 꿉은 놈인데 준석이 하고 친하거덩...그런데
글마 사촌이 바로 진숙인기라.

상택
진숙이?

상택의 아버지가 백미러로 힐끗 상택 쪽을 쳐다본다.

중호
디빈져 싱어!

상택이 좀 의외인듯 중호를 쳐다본다.

도루코 소개로 일요일날 준석이 집에서 모인단다. 나는 갈거다.
참, 부반장 그아는 안 온단다.

상택이 아버지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침을 삼키며

상택
다다음주에 모의고사 아이가?

중호
그라니까. 다다음 주 아이가. 다음주가 아이고...

상택이 좀 고민하는 표정을 짓자

가자 임마! 잘하믄 한 빠구리 할지도 모르는데...

상택
빠..빠구리?

중호가 씨익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나...나는 안 갈란다. 준석이 한테 내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 전해도.

중호
진짜로 안갈거가? 진짜로?

상택이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32. INT. 상택의 집-DAY

하얀 삼각팬티를 입은 상택이 안방으로 들어온다. 서랍을 열자 아버지의 양말들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다. 그 중에 `입생로랑'의 상표가 새겨진 양말을 하나 고른 후 회색 체크무늬의 손수건도 하나 꺼낸다.

CUT TO

약간 헐렁해 보이는 줄무늬 남방을 입은 상택이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본다. 표정도 여러 가지로 달리 해 본다. 돌아서려던 상택이 멈칫 선다. 잠시 고민을 하더니 엄마가 쓰는 여자용 향수를 집어 든다. 겨드랑이와 가슴에 그리고 머리통 위에 뿌리더니 손수건을 꺼내 그 위에도 조금 뿌린다.

33. EXT. 상택의 집앞-DAY

상택이 집 앞을 나서는데 중호도 나름대로 깨끗이 차려 입고 기다리고 있다. 머리카락은 더욱 앞가르마가 선명하다. 둘이서 서로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는 키득거리며 떠나려는데 막 집으로 들어오던 단발머리 여중생과 마주친다.

상택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는 듯)
엄마, 중도금 구하러 갔다. 좀 있으믄 올거다.

똘똘하고 야무지게 생긴 신애가 둘이 지나치자 코를 벌름 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신애
오빠야 느그 어디가노?

상택
(지나치며)
어디 간다.

신애
니 아부지 옷 입었다고 엄마한테 일라준다!

상택
(멀어지며)
일라주라!

상택과 중호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이를 바라보는 조그맣고 가느다란 눈의 신애가 의심이 가득찬 표정이다.

34. INT. 준석의 집-DAY

`COME BACK'이라는 당시의 유행하던 하드 록 음악이 덮개를 벗겨놓은 스피커의 동그란 표면이 들썩거릴 만큼 크게 터져 나오고 있다. 마루에 까지 음악이 터져 나오고 그 사이로 초인종 소리가 나지만 거의 들을 수가 없다. 떠들썩한 음악이 현관까지 울려퍼지는 가운데 현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신발들을 CU로 PAN해 보여준다. (크기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때가 꼬질꼬질하고 특히 운동화나 구두 할 것 없이 모두들 뒷꿈치가 구겨져 있다.) 카메라가 올라가면 반쯤 열린 현관문 사이로 상택이 서서 신발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상택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멈추는 곳에는 당시 술집 여자들이 목욕을 갈때나 신고 다니던 여자용 샌달 4켤레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게 보인다. 상택과 중호가 서로 마주보고 긴장한 듯 침을 꿀꺽 삼키는데 코 밑에 거뭇거뭇 수염을 깎지 않은 준석이 상체를 쑥 내민다.

준석
(장난기가 섞인 미소를 띄며)
어. 친구들! 들어온나.

35. INT. 준석의 방안-DAY

쿵쾅거리는 하드록 사운드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서는 상택의 긴장된 시점을 hand held camera로 표현한다. 문이 열리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준석의 방은 창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강한 햇살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이다. 창을 등지고 의자의 등받이 쪽을 사타구니에 끼우고 앉아 있는 키가 큰 여자애가 들어서는 상택을 보고는 쪼그리고 앉아 있는 옆의 여자애에게 뭐라고 얘기하며 키득거리는 것이 강한 실루엣으로 보일 뿐이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강한 베이스 사운드가 마치 상택의 심장고동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진다. 어느새 렌즈 앞으로 누가 쓱 다가오는데 역광을 받아 더욱 노란 머리색을 띠는 동수다. 상택의 어깨를 툭 친다.

동수
(엷게 웃으며)
안온다 했다메.

조그만 고양이 하나를 무릎사이에 끼워 양 앞발을 손처럼 만들어 장난을 치는 준석은 앉은 채로 전축 옆에 앉아 있는 인상이 아주 잔인해 보이는 녀석을 턱짓하며

준석
느그들 점마는 잘 모르제? 인사해라 `도루코'라꼬 날뺑에 일인자다.

도루코라는 녀석이 힐끗 상택을 올려다 보는데 눈길이 그리 곱질 않을 뿐만 아니라 코와 입술 사이에 언챙이 처럼 보일 만한 칼자국이 깊게 나 있다. 상택과 중호가 대충 악수를 나눈다. 이제 겨우 상택의 시선이 준석에게로 옮긴다. 준석이 여전히 새끼 고양이의 앞발을 양손에 쥐고 어르고 있다. 준석 옆에 앉아 있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보인다. 담배를 꼬나문 채 다소 상택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힐끗 올려다 본다.

참 느그들 딸내미들 보러 왔제?

준석이 턱으로 창가쪽에 앉은 여자애들을 가리키는 데로 카메라의 시점이 이동한다.

저번에 봤제? 그룹사운드 디빈져...이름이 뭐때메 디빈젼가 물어
보니까 그냥 디빈다고 디빈져란다.

계집애들은 뭐가 우스운지 키득거리면서 상택을 향해 인사 비슷하게 고개를 삐긋 숙인다. 시선이 다시 준석의 옆을 가리킨다.

내 옆에 앉은 딸아 이기 싱어다. 상택아 인사해라.

여자가 가소로운 양 상택을 힐끔 쳐다보고 다시 레코드 판을 만지작 거리는데

앉아라...친구야.

(이제서야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상택과 중호의 모습이 MS로 잡힌다.) 상택은 완전히 얼이 빠진 사람처럼 눈길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몰라 하며 슬그머니 준석의 옆에 벽을 기대고 앉는다. 중호도 이마에 땀이 맺힌 채 그 옆에 주저 앉는다. 다시금 상택의 눈동자가 방안의 분위기를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맞은편에 앉은 여자애들 둘이 계속 뭐라고 귓속말을 주고 받으며 키득거린다. 상택의 이마에도 마침내 땀이 맺히기 시작한다. 준석이 가지고 놀던 고양이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끼운다. 고양이가 야옹거린다.

(시선을 고양이에게 박은 채 장난치듯)
이년은 와일드 캣츠다! 너무 와일드 해가꼬 오늘 버릇을 고치고
있다 아이가...(양손가락 두개씩으로 번갈아 고양이의 뺨을
찰싹찰싹 때리며) 요년아! 때찐년아! 요년! 때찐년! 요년! 때찐년!

고양이는 앞발을 내저으며 야옹거리고 상택이 준석의 행동을 멍하게 쳐다보는데

안돼겠다. 이년...한뽕 따야지 정신을 차리겠다.

준석이 이윽고 고양이를 달랑 들어 꼬리쪽을 자신의 바짓가랑이 사이에 올려 놓더니

한뽕따자! (고양이를 들었다 놨다 하며) 뽕뽕뽕뽕.....

들썩이는 고양이는 계속 야옹.야옹 거리고 상택과 중호의 표정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몰라 더욱 당황하는데 앞에 앉은 여자애들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한다. 동수와 도루코도 기가 찬지 피실피실 웃는다.

(맞은편 여자애들을 향해)
이년들아 날아가는 새 좆을 봤나? 뭐가 좋다고 지랄들이고...느그
(상택을 가리키며) 내 친구 야아들은 억쑤로 모범생이다. 우리 같은
것들 하고는 다르다 이말이다.

상택이 민망한지 어색한 표정을 짓는데

공부도 맨날 전교 몇등에다가...

상택의 윗 호주머니에 꽂힌 손수선을 쓱 빼어선

봐라. 손수건도 갖고 댕긴다. 봤제 느그?

그러자 여자애들이 더욱 크게 웃어 젖히고 준석의 옆에 앉은 여자애도 픽-하고 웃음을 터트린다. 자존심이 상한 상택의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전축 쪽으로 다가가며

상택
(오버하는 목소리로)
아~ 씨바...뭐이래 시끄럽노.

상택이 전축의 파워 버튼을 꾹 눌러버리자 갑자기 퍼억-하는 소음과 함께 음악이 끊겨버린다.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 진다. 모두들 동작을 멈추고 상택 쪽을 쳐다본다.

36. EXT. 준석집 옥상-DAY

산동네 전경이 잘 보이는 준석집 옥상의 난간에 상택과 준석이 기대어 서 있다. 준석은 아까와는 사뭇 다른 진지한 표정이다

준석
나는 니가 한번 올줄 알았다...딸내미들 말고 내 보러...

상택
(뭔가를 알아차렸다는 투로)
...미안하다.

준석
아이다...친구끼리 미안한 기 어데있노 (상택을 보고 웃으며) 중학교도
니캉 같이 댕깃으믄 좋았을 낀데...니하고 놀았으믄 우등생 됐을 거
아이가?

상택도 씨익 웃는다. 그리고 둘이 다시금 별 말이 없는데

지금 공부한다꼬 폼 잡으믄 그것도 쪽팔리고...

상택
뭐가 쪽팔리노? 그냥 공부하믄 되지.

준석
(씁쓸하게 웃으며)
그기 안그렇다. (짐짓 표정을 바꾸어) 누구할래?

상택
뭐?

준석
딸내미.

상택
(잠시 고민하더니)
진짜로?

준석
그래. 셋 중에 하나 골라봐라. 다 착한거 같더라.

상택의 얼굴에 진한 갈등이 서리더니 조심스럽게

상택
혹시...니 옆에 있던 딸아...니꺼가?

준석
(피식 웃더니)
진숙이?...아니. 그거 할래?

상택이 다시금 약간 볼이 달아 올라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곤 둘이서 나란히 걸어 옥상에 난 출입구로 향한다. 상택이 슬그머니 입가에 미소를 띄우더니

상택
(매우 조심스럽게)
니...많이 해 봤나?

준석
(좀 시무룩하게)
뭐? 빠구리?

상택
(호기심에 가득차서)
응.

준석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털도 제대로 안난 가시나들 따묵어 보니 뭐하노...중학교 때 고등학생
딸내미 하나를 옥상에서 줄뻥을 놓는데...추븐 겨울에 보로박구 위에
홀딱 벗기가꼬 눕히 놓니까....가수나가 어찌나 벌벌 떨어 쌓는지...
선배들 먼저하고 내 차렌데 차마 못하겠드라. 옷 주가꼬 보냈다 아이가...

이야기를 마무리한 준석이 출입구로 빠져 나가고 그 뒤통수를 쳐다보는 상택의 표정이 좀 찝찝하다.

37. INT. 준석집-DAY

중호와 의자를 거꾸로 앉아 있던 여자애 둘 다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한쪽 방에서 슬그머니 나온다. 준석과 함께 들어오던 상택과 눈이 마주치자 중호가 좀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여자애가 중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탁 치자 화들짝 놀라며 괜시리 겸연쩍은 미소를 짓는다.

준석
(큰 소리로)
진숙아! 이리 나와봐라!

상택이 침을 꼴깍 삼킨다.

CUT TO

볼이 발갛게 상기된 상택이 쪼그리고 앉아 방안을 둘러본다. 옛날 가정부가 쓰도록 만든 조그만 골방 안은 이것저것 낡고 오래된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있는데 긴장이 되는 지 이것저것 손에 닿는 물건을 만져보기도 하다가 훅~하고 한숨을 쉰다. 이윽고 골방의 문이 열리며 준석의 옆에 앉아 있던 진숙이 들어온다. 상택이 어기적 일어서며 힐끔 진숙을 쳐다보는데 속눈썹이 길고 입술이 빨갛다. 한참동안 둘이서 뻘쭘하게 서 있다가

상택
(겨우 입을 열며)
아..앉지..요...

그리곤 자신이 먼저 앉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지 그냥 풀썩 주저앉고 만다. 진숙이 상택을 향해 옆모습을 보이며 자연스레 무릎을 세우고 그 사이에다 턱을 괴고 앉는다. 그리곤 물끄러미 상택을 쳐다본다. 상택이 여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걸 의식하는 듯 눈길을 어디에 둘지 몰라 좀 당황하다가 얼떨결에 벽에 세워진 낡은 기타를 집어 든다. 가슴에 끌어안고 만지작거리자

진숙
칠줄 아나?

상택
(놀라며)
어? 어....쪼금.

진숙
(예쁜 눈을 반짝이며)
치봐.

상택
(매우 당황스런 모습으로)
내가...할줄...아는기..

상택의 눈동자가 긴장하고 코드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린다. 진숙이 이를 쳐다본다. 상택이 진숙을 힐끗 보다가 다시 얼른 눈길을 돌린다. 진숙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서린다. 애써 긴장을 풀고 코드를 잡은 상택이 겨우 기타 줄을 튕기는데 "로망스"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38. INT. 준석집 화장실-DAY

준석이 바지춤을 내린 채 소변을 보고 있는데 동수가 들어온다. 세면대 앞에 서서는 자신의 바짓가랭이를 풀고 세면대에 바싹 붙어 선다. 준석이 물음표가 담긴 표정으로 쳐다본다. 동수가 세면대의 물을 틀어 아랫도리를 씻기 시작한다.

준석
뭐하노?

동수
(아무렇지도 않게)
상택이 점마 묵고 나문 나도 한그릇 할라꼬...

준석의 표정이 조금 굳는다.

준석
놔 두라.

동수가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동수
우짜피 묵을라꼬 부른거 아이가? 돌리야지.

준석
(변기물을 내리고 바지춤을 올리며)
니 묵으라꼬 부른거 아이다.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준석이 문을 열고 화장실을 나가려는데 동수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다가

동수
(준석의 어깨를 툭 잡으며)
와 그라노?

자신의 어깨에 얹혀진 동수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한번 보더니

준석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죽고 싶나?

그 말에 동수가 욱-하며 금방이라도 칠 듯이 준석을 노려본다. 준석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매우 무서워 보인다. 그러자 동수가 슬그머니 눈을 피하고 만다. 손을 어깨에서 내리자 준석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화장실을 나온다. 문이 닫히자 말없이 한참 서 있던 동수가 핏-하고 혼자 웃음을 터트리고 만다.

39. INT. 준석집-DAY

상택의 기타 연주가 능숙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들을 만 하다. 상택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물끄러미 보고있던 진숙이

진숙
(좀 가엾단 듯이)
니...억쑤로 순진하네.

상택이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든다.

상택
뭐...뭐라고?

진숙이 상택에게 성큼 다가간다. 상택이 놀란다. 진숙이 상택의 눈을 빤히 쳐다본다. 상택이 극도로 긴장한다.

진숙

나는 니 같은 사람이 좋다.

상택이 어쩔줄을 몰라 어색한 웃음을 짓는데

상택
(애써 웃어보이며)
니...니도..

진숙이 재빠르게 상택의 입술을 쪽 훔친다. 상택이 얼어 붙는다.

진숙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친구하자...오늘은 내가 키스만 해 주께...

상택이 자기도 모르게 얼빠진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인다. 잠시 후, 진숙의 입술이 천천히 상택의 입술을 향해 다가간다. 상택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가풀이 파르르 떨린다. 진숙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나온 혀 끝이 살짝 상택의 입술에 닿는다. 상택이 스르르 눈을 감고 만다.

40. INT. 교실 안-NIGHT

자율 학습을 감시하는 선생님이 슬리퍼를 끌며 복도를 지나간다. 드럼 스틱으로 만든 몽둥이 끝이 손가락 끝에 메달려 대롱대롱 좌우로 흔들리고 선생님은 창문을 기웃거리며 교실 안을 순찰하고 있다. 교실에는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열심히 수학정석과 성문기본영어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다. 몇몇은 피곤한 듯 하품을 해댄다. 잠시 후, 선생님이 상택의 교실을 지나치자 책을 하나 세워 놓고 고개를 파묻고 있던 상택이 살며시 고개를 든다. 선생님이 지나간 것을 확인 한 후 책을 접어 가방 속에 넣고는 옆의 짝에게 간다고 눈짓을 한다. 짝이 그러지 말라는 듯 인상을 쓰자 씽긋 웃어보이고 화단이 있는 창문을 살짝 넘어 교실을 빠져 나간다.

41. INT. 롤러스케이트 장-DAY

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네바퀴의 롤러스케이트가 신나게 바닥을 질주하고 있다. 스케이트장의 스피커에선 당시 유행했던 흑인 락풍의 `아이노코리다'가 경쾌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교복을 입고 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 사이로 상택과 진숙의 모습이 보인다. 상택의 동복은 어느새 사진부 선배들의 교복처럼 당꼬 스타일의 바지에다 후크를 풀어헤치고 그 속에 흰 목티를 받쳐입었다. 스포츠 머리를 최대한 세워 올백 스타일이고 모자는 쓰지 않았다. 능숙한 폼으로 스케이트를 뒤로도 타고 급정거 브레이크로 진숙 앞에 끼익 서면 진숙은 일부러 깜짝 놀란 듯 비틀거리다 자연스레 상택과 포옹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번 디빈져 공연에서 봤던 빵모자 무리들이 구석에서 상택이 노는 꼴을 아니꼽다는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그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주고 받더니 가장 키가 작고 빵모자를 쓴 녀석이 진숙에게로 다가간다. 진숙이 혼자 살살 연습을 하듯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작은 녀석이 다가온다.

작은녀석
진숙아. 니 좆나게 오랜만이네.

진숙이 작은 녀석을 힐끗 보고는 모른 척한다.

씨발년아. 니가 언제부터 로라타고 지랄이고?

진숙이 멈춘다.

진숙
(싸늘하게)
꺼지라!

이때, 진숙에게로 다가오던 상택의 눈에 작은 녀석이 진숙의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기는 게 보인다. 상택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힘껏 치달아 작은 녀석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박아버린다. 뻑-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녀석이 뒤로 자빠지고 상택이 진숙의 앞에 막아선다. 넘어졌던 녀석이 잽싸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짜르륵-소리와 함께 조그만 카터칼을 꺼내든다. 상택의 눈에 그제사 작지만 독하게 생긴 녀석의 얼굴이 보인다.

작은녀석
좆맹거! 니는 오늘 다 살았다.

진숙을 뒤로 하고 상택 자신도 흠칫 긴장하는데 작은 녀석의 패거리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순식간에 상택을 7~8명을 상대로 상택이 마주한다. 진숙이 뒤로 달아난다. 상택이 더욱 긴장하고 칼을 뺀 녀석이 씨익-웃으며 상택에게로 다가온다. 쉭-하고 입으로 효과음을 내며 상택의 복부 앞 공간을 휙 그어준다. 상택이 놀라 뒤로 물러나다가 로라스케이트 때문에 엉거주춤 뒤로 엉덩방아를 찧어버린다. 녀석들이 상택의 꼴을 보고 키득거린다. 상택이 재빨리 몸을 가다듬어 일어난다. 녀석들이 더욱 가까이 왔다. 작은녀석이 쑥-칼을 코앞에 들이댄다. 상택의 호흡이 멎는다. 작은녀석은 겁먹은 상택을 놀리 듯이 빙글빙글 웃더니 칼을 잽싸게 왼손으로 바꿔 쥔다. 상택의 눈이 자신도 모르게 옮겨진 칼을 따라가고 순간 작은녀석이 오른손으로 상택의 뺨을 후려갈기자 쨕-하고 소리가 난다. 패거리들이 다시 웃는다. 상택의 볼이 붉어 진다. 녀석이 다시 칼을 오른손으로 옮겨쥠과 동시에 이번엔 왼손으로 상택의 뺨을 후려 갈긴다. 역시 쨕-하고 소리가 터지고 패거리들이 더욱 피들거린다.

고마 확 그어주까?

녀석이 장난기 서린 표정으로 다시 카터칼을 옮겨 쥐려고 잠시 허공에 띄우는 순간, 두꺼운 각목이 끼어들며 그 칼과 함께 녀석의 손목을 사정없이 내리 쳐 버린다. 악-하며 작은녀석이 뒤로 무른다. 칼은 바닥에 부딪혀 탱그렁 소리가 나고 상택이 고갤 돌리자 준석과 중호 동수가 와 있다. 준석의 손에 각목 하나가 쥐어진게 보인다. 상택을 놀리던 녀석들이 짐짓 뒤로 무른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 준석의 패거리들이 눈을 부라린 채 앞으로 다가갈 때마다 녀석들은 슬슬 뒤로 무른다. 이때, 상택을 칼로 놀렸던 녀석이 준석을 향해 주먹을 쳐들고 달려든다. 준석의 발이 잽싸게 먼저 녀석의 사타구니를 퍼억-하고 올려차 버린다. 달려들던 녀석이 그자리에서 바로 꼬꾸라진다. 그리곤 고통스러운듯 사타구니를 움켜잡고 눈이 튀어나올 듯 으~하며 인상을 쓴다. 더이상 아무도 덤비질 못한다.

준석
(짧고 싸늘하게)
다 꿇어앉아!

CUT TO

준석과 중호, 동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택이 꿇어 앉아 있는 녀석들을 때릴려고 폼을 잡고 있다. 결국 상택이 녀석들을 차례로 얼굴에 주먹을 한방씩 먹인다. 어딘가 모르게 때리는 모습이 좀 어설프다. 상택이 준석을 쳐다본다. 준석과 동수 그리고 중호는 그냥 서서 묵묵히 지켜볼 뿐, 말리거나 끼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상택이 어느 정도 분이 풀린 듯 서 있다가 자신의 뺨을 때린 녀석을 내려다 본다. 녀석이 삐리한 표정으로 상택을 올려다 본다. 상택이 발로 녀석의 복부를 차버리자 그제서야 녀석이 앞으로 꼬꾸

라진다. 상택이 다른 녀석들도 발로 배를 한방씩 차 준다. 녀석들이 차례로 앞으로 꼬꾸라진다. 준석이 상택이 하는 꼴을 물끄러미 보고있다.

42. EXT. 용두산 공원-NIGHT

네 녀석이 부산 시내의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 기대어 서 있다. 소주 한 병을 돌아가며 나발을 불고 안주는 준석이 들고 있는 새우깡을 집어먹는다. 준석은 새우깡 토막을 앞에 모여있는 비둘기들에게 하나 둘씩 던져주기도 한다. 비둘기들이 서로 쪼아먹으려고 푸드득거린다. 네 녀석은 많이 취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은지 연신 키득거리고 있다.

중호
(무용담을 얘기하듯 힘들게 자위하는 시늉을 하며)
이래 잡고 빠바바박 땡깃거던.

나머지 녀석들이 중호가 하는 짓을 보며 히히덕거린다.

상택
(장난으로 혼잣말 하듯)
새~끼 꼬치도 제일 짝은 기...

중호
그래가...(사정하는 인상을 쓰며) 으~해가...고마 찍-손바닥 위에
쌌뻿거덩. 이때, (놀라는 표정으로) 우리 이모가 문을 팍 열고 들어
오는기라.

웃던 녀석들이 순간 웃음을 멈춘다.

내가 울매나 놀랬겠노? 우리 이모가 내 손을 보더이..."니 그기 뭐꼬?"
그라는 기라. 그래가 내가 놀래서 순간적으로 뭐라 했겠노?

준석
뭐라했는데?

중호
(태연스런 표정으로 크림을 볼에 바르는 시늉을 하며)
아~ 이거? 이거 동동구리무다. 동동구리무...

녀석들이 기가차단 듯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트린다.

CUT TO

네 녀석이 털래털래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다. 이때, 마침 올라오는 여고생들을 발견하고 중호가 동수의 팔을 잡고 여학생들 쪽으로 슬그머니 다가간다. 중호가 건들거리며 여학생들을 꼬시기 시작하고 준석과 상택은 그저 웃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준석
상택아.

상택
응?

준석
다음에도 혹시 아새끼들 팰 일이 있으믄 확실하게 조지야된다이.

상택
...와? 내는...

준석
(상택의 말을 자르며)
그정도로 그치문 다음에 니 보믄 또 해보자꼬 달라든다.

상택의 표정이 굳는다.

아예 누구를 조질 때는 다음에 눈만 마주치도 오줌을 찔끔 싸게끔
만들어놔야 되는기라. 아예 용서해주고 같은 편으로 만들든가 아니믄
차라리 빙신 쯤으로 만들어삐라. 그래야 뒤 탈이 없다.

상택이 수긍은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린다.

43. INT. 상택의 집-NIGHT

찰칵 소리가 나며 상택이 문고리를 여는 소리가 난다. 빼꼼이 현관을 들어선 상택이 살금살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확-하고 불이 켜진다. 잠옷 차림의 아버지가 서 있다.

상택
(뜨끔 놀란 듯)
아...안주무셨어예?

아버지가 잠시 상택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상택이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짓는데

아버지
공부한다고 늦었나?

상택
(좀 우물쭈물하며)
예?..예...모의고사가 있어서예...

아버지
피곤하겠네. 자라.

아버지가 뒤돌아 안방 쪽으로 들어가자

상택
주..주무세요.

아버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상택이 후~하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44. INT. 교무실-DAY

교무실의 구석에서 야비한 선생 앞에 준석과 동수가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야비한 선생이 뭐라고 부드러운 인상을 지으며 말하고 준석과 동수는 그냥 듣고만 있다.

45. EXT. 교문 밖-DAY

상택과 중호가 기다리고 있는데 준석과 동수가 교문 밖으로 걸어 나온다. 상택과 중호가 그 쪽으로 뛰어간다.

중호
얌새이가 뭐라하대? 또 지랄 하드나?

준석
벌써 퇴학처리 했단다.

모두들 그말에 눈이 동그래 지는데

준석
(씩-웃으며)
다 잘됐다. 내일부터 학교 나올거다. (상택을 툭 치며) 덕분이다.

상택
내...내가 무슨...

46. EXT. 남포동 거리-DAY

리듬과 비트가 강한 음악이 화면을 메우고 마치 한편의 뮤직 비디오 처럼 상택과 준석, 중호, 동수가 여전히 껄렁한 폼으로 남포동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네 녀석의 각각의 모습들과 함께 당시의 남포동 거리 풍경들과 사람들의 패션, 그리고 삼삼오오 몰려다니는 남녀 학생들의 모습을 포함한 갖가지 샷들이 음악의 리듬에 맞게 편집된다. 녀석이 행차하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고 녀석들의 움직임은 멋있게 고속촬영으로 잡힌다.

47. EXT. 영화관 앞-DAY

타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왔는지 길게 줄을 늘어서서 차례로 극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단체 학생들의 줄과 좀 거리를 두고 길거리에 네 녀석이 서있는 게 보인다. 모두 간판을 보고 있다.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존이 주연하는 "그리스"라는 영화다

상택
볼래?

중호
(턱으로 가리키며)

저 껄뱅이 새끼들하고 같이?

동수
상관있나? 까불문 직이삐지.

48. INT. 영화관 안-DAY

영화관 안에는 옛날 영화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내 안경점이나 양복점 혹은 레스토랑의 촌스런 광고가 역시 촌스런 성우의 멘트와 함께 나오고 있고 단체 관람을 온 학생들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서로 장난도 치고 까불며 목에 자판을 걸고 다니며 먹을 것 등을 파는 아저씨로 부터 오징어나 과자 등을 사먹으며 즐거워한다. 이층에선 장난기 많은 녀석 하나가 고무줄을 손가락에 끼워 종이를 말아 만든 총알을 걸어 몰래 아래로 쏘고 숨어 버리면 총알을 맞은 녀석이 위를 보며 고함을 친다. 카메라가 이층으로 이동하면 앞줄에 상택의 무리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보인다. 동수가 고무총을 쏘고 숨으며 까불어대는 녀석을 보고는

동수
좆맹거!

까불던 녀석이 쳐다본다.

빵구다이 붙이고 안앉아 있을래?

까불던 녀석이 뭔가 싫어서 쳐다보자

씨발놈아. 뭘 째리보노? 눈까리 파뿌까?

까불던 녀석과 주변의 녀석들이 아무말 않고 앉아있는 준석을 알아보고 수근거리며 자리에 앉는다. 옆에 앉아있던 상택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중호
어디가노?

상택
물 뺍으러.

49. INT. 극장 화장실-DAY

화장실로 들어온 상택이 오줌을 많이 참았는지 서둘러 바지춤을 내리고 소변을 보기 시작한다. 휴~하고 편안한 인상이 되는데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일단의 학생 무리들이 들어온다. 들어오자마자 담배를 꼬나 물고 불을 붙이며 상스런 말들을 주고 받는데 다름 아닌 상택과 롤라스케이트장에서 한판 붙었던 녀석들이다. 아직도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퍼렇게 멍이 있는 녀석도 있다. 상택이 얼른 고개를 돌리고 녀석들이 상택을 지나쳐 구석으로 간다. 상택이 찝찝한 표정이 되어 빨리 오줌을 누려고 아래춤을 내려다보는데 상택에게 호되게 당했던 작은녀석이 멈칫 동작을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슬금슬금 상택에게 다가온다. 상택이 그 녀석이 다가오는 걸 힐끗 보고는 낭패스런 표정을 짓는다. 작은 녀석이 상택의 바로 옆으로 와서는 확신이 섰다는 듯이 표정이 일그러지며

작은녀석

(잘~걸렸단 듯이)
이~ 씹새끼가!

작은 녀석이 다짜고짜 뒤에서 상택의 허리를 차버리자 상택이 앞이마를 벽에 쿵 부딪힌다. 연이어 날아오는 주먹이 상택의 면상에 작렬한다. 다른 녀석들도 우르르 몰려온다.

50. INT. 극장안-DAY

무지 화면에 자막이 뜨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의 문이 확 열린다. 강한 빛이 새어 들어 온다. 한 녀석이 극장에 앉아있는 녀석들을 향해

문연녀석
(고함을 치듯)
모다구리다!

그러자 앉아 있던 학생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순식간에 와-하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간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린 준석의 패거리들도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튕기듯 밖으로 나간다.

51. INT. 극장복도-DAY

준석의 패거리가 많은 학생들의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 화장실 입구에 다다르자 10명이 넘는 학생들에 의해 상택이 피떡이 되도록 맞고 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일제히 달려들어 상택을 린치하는 녀석들을 까고 때리며 상택을 구해낸다.

CUT TO

중호가 피떡이 된 상택을 부축하고 준석과 동수가 우르르 따라오는 녀석들에게 고함을 치며 계단 쪽으로 내려오려는데 일층으로 부터 수십명의 패거리들이 마주 보며 오고 있다. 위아래로 포위된 꼴이 되고 만다. 준석과 동수도 표정이 일그러지며 긴장한다. 일층의 녀석들은 한 가닥씩 하는 양 껄렁한 폼으로 준석의 무리들을 올려다보더니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허리띠를 풀어 가죽의 끝을 손에 감아 쥐자 쇠로 된 바클의 끝이 추처럼 아래로 무겁게 쳐진다. 그리곤 천천히 준석의 무리를 향해 올라온다. 준석이 뒤를 돌아본다. 뒤쪽의 녀석들도 어느새 손에 하나씩 몽둥이나 허리띠 등을 감아 들고 있다. 준석과 동수가 중호와 상택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버티고 서 보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녀석들이 차츰 거리를 좁혀오고 얼굴의 근육이 씰룩거리던 준석이 웃옷을 위에서 부터 아래로 터 버리자 투두둑하고 교복 단추들이 터져서 바닥에 떨어진다.

준석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좋다! 씹새끼들 다 덤비라!

입고있던 내의를 찢어버린다. 준석의 배에는 이미 서너개의 칼자국이 나 있다. 그러나 올라오던 녀석들이 잠시 움찔 하지만 다시금 별거 아니란 표정을 짓는다. 그리곤 계속 올라온다.

(다급한 목소리로)
중호야! 니가 상택이 책임 지라!

중호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준석이 뭔가를 결심 한 듯 주변을 살핀다. 그리곤 잽싸게 소화전 모래주머니를 밟고 올라가 나무로 된 창틀을 뽑아 든다. 올라오던 녀석들이 움찔한다. 준석이 창틀을 벽에 때리자 챙그렁 소리와 함께 유리조각이 깨져 떨어진다. 동수가 길고 커다란 유리조각을 두개를 맨손으로 쥐고 버티고 선다. 동수의 손에서 피가 흐른다. 그런데 상대편 녀석들 중 하나가 허리 뒤 춤에서 몽키스패너를 빼어 든다. 순간, 직이라!-하는 소리와 함께 몽키스패너를 던지고 준석에게 달려든다. 와-하는 함성과 함께 양쪽에서 녀석들이 달려들고 화면은 슬로우모션으로 변한다. 멀리서 선생들 몇몇과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온다. 그와 동시에 맨 앞에 달려드는 녀석을 준석이 들고있던 유리창 틀로 찍어버린다. 틀에 끼어있던 유리조각이 녀석의 얼굴을 긁고 내려간다. 작은녀석이 휘두르는 허리띠를 한 팔로 막아낸 동수가 유리조각 끝으로 녀석의 귀 언저리를 찍어버린다. 중호가 고갤 돌리며 상택을 온몸으로 감싼다. 그 위로 호루라기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덮는다.

52. INT. 학교복도-DAY

교복을 말끔히 차려 입고 아직 얼굴이 엉망인 상택과 정장을 차려 입은 상택의 아버지가 나란히 복도 끝을 돌아 걸어 나온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 아버지의 구두 소리가 무겁게 들린다.

53. INT. 교장실-DAY

교장실 소파에 앉아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교장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상택의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 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앉는다. 교장이 난처한 표정이 되어 상택의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는 데 상택의 아버지는 더욱 머리를 조아린다.

CUT TO

상택이 교장실 문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

54. INT. 상택집-NIGHT

식탁에 둘러 앉은 부모님과 동생들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다. 상택은 밥을 입으로 넣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있다. 동생들은 모른 척 밥 먹는데 열중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상택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고 있다.

55. INT. 상택집 안방-NIGHT

외출복을 입은 상택이 몰래 안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뒤를 의식하듯 돌아보더니 장농쪽으로 다가온다. 문을 열고는 장롱 서랍을 살며시 연다.

56. INT. 준석의 집-NIGHT

얼굴에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준석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상택을 무릎에 턱을 괸 채 물끄러미 보고 있다. 상택이 입안에 밥을 가득 넣은 채 길다란 총각 김치를 으적 베어 문다.

상택
느그집 총각김치 직이네. 어머니가 담은거가? 참! 느그 어머니

어데 가싯노?

준석
병원에 있다아이가...제법 됐다. 입원한지.

상택
우데가 그래 편찮으시노? 많이 아프시나?

상택이 딴청을 피우는데 이를 지켜보던 준석이

준석
니 가출했제?

상택이 준석을 빤히 쳐다보더니

상택
그래.

준석
와?

상택이 입맛이 달아난 듯 숟가락을 놓더니 품속에서 신문지에 싸인 뭉치를 꺼낸다. 준석이 상택을 한번 힐끗 보고는 신문지를 풀자 만원권의 백만원짜리 다발이 3개가 나온다.

준석
뭐꼬 이거?

상택
서울가자.

준석
서울? (좀 기가찬 듯) 서울가믄?

상택
이거 가지고 가믄 무슨 수가 안 생기겠나?

준석이 픽-웃는다. 상택이 약간 자존심이 상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57. EXT. 바닷가 방파제-NIGHT

겨울 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바다는 그 파도의 끝이 방파제 끝에 닫는 순간 하얀 포말로 폭발하고 있다. 방파제 끝에 오바코트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상택과 준석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다. 한동안 말이 없던 준석이 시선을 바다 끝에 고정시킨 채 표정이 매우 쓸쓸해 보인다. 근처에 있던 돌맹이를 하나 집어 들어서 바닥에 긁적이며

상택
동수도 짤리고 중호는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낸다 하드라...다
내 때문이다.

준석
상택아.

상택
와?

준석
니가 돈들고 가출해가 내한테 찾아오믄 내가 "와- 상택아 잘했다.
인자 우리 같이 건달해가 같이 인생 개판치자!" 그랄줄 알았나?

상택
그기 아이라...

준석
(상택의 말을 자르며)
내가 우리집이 제일 좆같다고 생각할 때가 언젠지 아나?

상택이 준석을 쳐다본다. 준석이 미간사이를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 본다.

나는 어릴 때 우리집에 삼촌들이 많아서 참 좋았거던...그런데
중학교 때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그때 내가 삼촌 이라고
부르던 새끼들 중에 한놈이라도 내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기라...
씨~바...누가 뭐라했었거나 아이믄 아예 패주기라도 했으믄 혹시
내가 정신을 차릿을 지도 모르는데...

끝말이 약간 잠기고 만다. 준석이 일어나 들고 있던 돌을 멀리 바다쪽을 향해 던진다. 어두워서 날아간 돌멩이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인자부터 니는 니처럼 살아라...나는 내처럼 사께...

상택이 대답 대신 눈길을 아래로 깔고 만다.

58. INT. 상택의 집-새벽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며 상택이 들어온다. 이때, 상택의 방에서 어머니가 나온다. 상택을 쳐다보기만 할 뿐 말이 없다. 상택이 품속에서 돈뭉치를 꺼내어 내민다. 어머니가 다가와 건네 받으며

어머니
아버지는 니가 중도금 갖고 나갔던거 모르신다. 드가서 자라.

상택이 대꾸없이 서 있다.

CUT TO

상택방의 문이 열리며 상택이 들어온다. 가지런히 이부자리가 펴져있다. 상택이 옷을 벗지 않은 채 이불 위에 풀썩 앉아본다. 한참 혼자서 앉아 있더니 벌렁 옆으로 누워버린다. 카메라가 부감 SHOT에서 천천히 아래로 ECU(두눈)까지 내려가며...

SLOW FADE OUT
SLOW FADE IN

59. EXT. 준석의 집 앞-NIGHT

벨을 눌리는 손이 CU로 잡힌다. 다시 딩동~하고 소리가 난 후 카메라가 앵글을 바꾸자 파란색 오리털 파카를 입은 20대 초반의 상택과 밤색의 골덴 콤비 양복상의를 입은 중호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낯이 익은 여자가 고개를 쑥 내민다. 다름아닌 진숙이다.

진숙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오랜만이네요.

상택
어?...아예..

준석(O.S)
(멀리 집안으로부터 다소 신경질적으로)
누고?

진숙이 대답대신 상택을 다시 쳐다본다.

60. INT. 준석의 집-NIGHT

20대 초반 모습인 준석의 얼굴은 금방 무덤에서 기어나온 사람처럼 눈이 퀭하고 말라있다. 게다가 몸을 덜덜 떨며 두꺼운 이불을 덮고 앉아 목과 얼굴만을 내놓고있다. 그리고 눈은 금방이라도 누굴 잡아먹을 것처럼 부릅뜨고 있다. 중호와 상택이 들어오자 이불 밖으로 손을 쑥 내민다.

준석
(필요이상의 큰 소리로)
와~ 어서온나 친구들아. (중호를 보더니) 야~ 꼬맹이 오랜만이네.
니 그동안 뭐했노 임마!

중호
(미소를 띤 채 악수를 하며)
잘 있었나?

준석이 상택이 들고있는 귤봉지를 보더니

준석
야. 친구야 그런거는 뭐할라꼬 사오노? 야~ 진숙아!

진숙이 온다. 아까와는 다른 부드러운 표정이다.

봐라! 내가 이야기 했제? 느그 서방 친구들이 꼭 내를 다시 찾아
올끼라꼬. (귤봉지를 주며) 이거 가지 가라.

중호와 상택의 표정이 좀 민망해 지는데

아 참. (진숙을 턱으로 가리키며) 저기 내 마누라다. 느그도 알제?
빠구리를 하도 잘해서 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다아이가.

순간 진숙의 얼굴에 확 그늘이 진다. 상택과 중호도 입장이 곤란한 듯 진숙을 쳐다보지 못하고 대충 인사를 한다. 진숙이 준석에게 원망스런 눈길을 보내고 귤봉지를 들고 사라진다. 준석의 표정에 약간의 광기가 서리며

저 씨발년이 지금 누구를 째리고 가노? 확 저년 보지를 잡아
찢어삐까..

상택
(듣다못해 정색을 하며)
야. 니 와그라노?

준석
(다시 번쩍 정신이 든 듯)
어..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오랜만에 느그 보니까 너무 반갑어가..

중호
니 몸이 많이 안좋은 가베?

준석
아이다 괜찮다...원래 약기운이 떨어지고 나문 이래 춥고 헷갈리고
그렇다.

중호
무슨 약?

준석
무슨 약은...히로뽕이지.

상택과 중호가 놀란듯 서로를 마주본다.

상택
니 히로뽕하나?

준석
(다시 호기를 부리며)
아이다. 아이다. 느그 놀릴라꼬 해본 소리다. 참 느그 둘다 대학생
됐다메?

중호
(좀 쑥스러워 하며)
나는 이년제다.

준석
와~ 직이네. 내 친구들이 둘씩이나 엘리트 대학생이네. 야 느그들

나중에 내 폐인되문 잘 해주야 된다. 알았제?

상택
니는 무슨 말을 그래하노...

이때, 진숙이 귤을 담은 접시를 가지고 들어온다. 애써 웃어보이려는 표정이 역력하다.

진숙
이거...사오신 거를 담아와서 우짜지예...

상택
(자신도 미소를 지어 보이며)
괜찮습니다. 뭐 어때예...

준석의 퀭한 눈이 진숙의 웃는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준석
(저주를 퍼붓듯이)
야이 씨발년아! 그래..느그 남편은 깡팬데 잘생긴 대학생 친구들이
오니까 보지가 벌렁벌렁하나? 엉? 단체로 떼씹 한번 놔주까? 엉?
이 개같은 년아...

진숙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한 슬픈 눈으로 준석을 쳐다본다.

상택
준석아!

준석
아이다 친구야. 말리지 마라. 저년이 요즘 뭐가 불만이 많다니까.
니 일루와봐. 이 썅년아...

진숙이 참다못해 다시 자리를 뜨고 만다. 상택의 눈에 진숙의 속상하고 슬픈 눈이 보인다. 준석이 씩씩거리며

저년봐라...야. 니 이리 안올래? 오늘 고마 니 제삿날 하까?

상택
(자르듯 약간 격한 목소리로)
준석아!

준석이 말을 멈춘다. 상택이 중호를 쳐다본다. 중호의 얼굴이 빨갛다. 상택이 중호에게 일어나자고 턱짓을 하며

우리 가께.

다시 정신을 차린 준석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고갤 숙이고 만다.

61. EXT. 골목길-NIGHT

중호와 상택이 아무말 없이 터벅터벅 걷고있다. 기가찬 듯 둘이서 한숨을 푹푹 쉬어 대더니

중호
점마...우짜다가 저래됐노...

상택이 대답을 않고 계속 걷기만 한다. 그러다 갑자기 걸음을 멈춘다. 중호가 쳐다본다.

상택
중호야. 내는 좀더 있다가 가께.

중호
(고갤 숙이고 잠깐 생각을 하더니)
나는 먼저 가께.

상택
(할수 없다는 듯이)
응.

62. INT. 준석의 방-NIGHT

준석과 상택이 나란히 벽에 기댄 채 누워있다. 상택이 담배를 꺼내 입술 중간에 어색하게 물고서는 준석에게도 하나 건넨다. 준석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면서도 담배를 건네 받는다. 상택이 두 개의 담배에 차례로 불을 붙여준다. 금단 현상이 조금은 완화된 듯 준석의 표정은 아까 보단 훨씬 편안해 보인다.

상택
어머니 돌아가신거 몰랐다. 미안하다.

준석
내가 연락을 안했는데 뭐...

상택
장례는 잘 치랐나?

준석
동수집이 장의사 아이가...잘 치랐다.

상택
요새 동수는 뭐하노?

준석
빵에 있다.

상택이 준석을 쳐다본다.

나도 한번 갔다왔다. 지도 조직에서 클라믄 최소한 별은 한개
달아야지...

상택이 할말이 없는지 다시 멍하게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더니

상택
히로뽕하믄...재밋나?

준석이 잠시 말이 없더니

준석
(턱으로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저 사진 봐봐.

상택이 눈길을 돌려 사진을 보자 적도 어느 바닷가의 아름다운 해변이 찍혀있다.

(마치 아련한 추억을 회상하듯)
지금 니가 저 사진 속에 들어가서 놀고 싶다고 생각하믄 그대로
된다. 수영을 하고 싶으믄 하고...여자랑 놀고 싶으믄 놀고...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믄 저 안에 다 있다. 진짜랑 똑같이....

상택이 준석을 쳐다본다.

상택
...계속 할거가?

준석
...아니.

다시 둘이서 말이 없다가

상택아.

상택
와?

준석
니 파카 입고 왔제?

상택
파카?

준석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사러가자. 우리 엄마한테 카드라도 하나
부칠라꼬.

상택이 준석을 빤히 쳐다본다.

우리엄마 좆나게 불쌍하다. 내 하나 놓고 성질 더러븐 영감 수발이나
들다가...병원에서만 5년 넘게 살다가 죽었다 아이가.

상택이 미안함에 씁슬한 표정이 되는데

우리 꼰대가 내 돈 주봐야 약 산다꼬 땡전한푼 안 주가꼬 입고 나갈
옷이 없는 기라. 밖에 추버 죽겠는데...

63. EXT. 광복동 거리-NIGHT

준석의 수척한 몸이 상택의 등에 딱 달라붙어있다. 준석의 양팔이 상택의 목을 감고 있고 손에는 카드가 한 장 들려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상택이 입고 온 파란색 오리털 파카를 뒤집어 쓰다시피 하고 걷고 있다. 시내의 거리에는 점포마다 각종 크리스마스 장식등으로 환하게 치장되어 있고 여러 곳에서 흥겨운 캐롤송이 흘러나오며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퍼진다. 준석과 상택을 스치며 지나가는 팔장 낀 연인들이 좀 이상하단 눈길을 보내고 지나간다. 게다가 준석은 자꾸만 마른 침을 뱉는데 그때마다 소량의 하얀 백색 침이 까만 아스팔트 바닥에 딱딱 박힌다.

상택
니 침이 와 그렇노?

준석
(추운 듯 덜덜 떨며)
밸거 아이다. 원래 약하믄 침이 말라가꼬 저렇다.

준석의 몸이 좀 갈수록 심하게 떨자

상택
니 괜찮겠나?

준석
응 걱정마라. 상택아...우리 약속 하나 하자.

상택
뭐?

준석
나는 배운기 깡패질이니까...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이지
직이삐고 싶은 놈이 있스믄 내한테 딱 한놈만 말해라. 내가 직이
주께. 그라고...

상택이 고갤 돌려 준석을 쳐다본다.

니는 나중에 내가 늙어가꼬 건달짓 못하게 되서 니 찾아가믄...
그때, 내 개인 택시 한대만 빼줄래?

상택
개인 택시?

준석
응. 나도 죽을 때 까지 신세 질 수는 없다 아이가...그때 나도
마누라캉 아도 있을 지 모르는데...

상택
그런소리 하지마라.

준석
아이다...아무리 생각 해 봐도 니 밖에 없다. 내 주위에 나머지는
다 건달들 아이가...약속해라.

상택
안할란다.

준석이 상택을 똑바로 쳐다본다.

준석
부탁이다. 약속해라.

상택이 준석을 한참 쳐다보더니

상택
알았다...그래하자...

그리곤 준석을 업은 상택은 계속해서 걸어간다. 준석이 연신 침을 뱉고 몸이 연신 떨리면서도 언제부터인가 거리에 흘러나오는 캐롤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준석이 상택의 목에 감은 팔에 힘을 준다. 준석의 노랫소리가 떨림 속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FADE OUT
FADE IN

64. INT. 준석의 집-NIGHT

준석의 집 안방에 크지는 않지만 다부진 몸과 양복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 입고 얼굴은 날카로운 매의 인상을 한 콧수염의 사내와 준석의 부친이 조촐한 안주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다. 콧수염이 뭐라고 진지하게 준석 부친에게 말을 하면 준석 부친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이때, 준석방의 문이 조금 열리며 상택이 입고 왔던 파란색 오리털 파카를 뒤집어 쓴 준석이 보인다. 소주잔을 내려놓던 콧수염이 열린 문틈 사이로 준석을 발견한다. 준석이 손을 뻗어 마루에 있던 재떨이를 가지고 들어가려다 콧수염과 눈이 마주친다. 그리곤 얼어 붙는다. 콧수염 역시 굳은 표정으로 준석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두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로의 눈을 한참동안 응시하고 있다가 콧수염이 눈길을 돌려 준석 부친을 보고는

콧수염
아드님 아입니까?

준석아버지
(애써 무시하듯)
저거는...인간 안될 새끼다.

준석이 뭐에 홀린 사람처럼 콧수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콧수염도 준석쪽을 다시 한번 힐끗 보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만다.

65. EXT. 준석의 집 앞-NIGHT

준석의 아버지가 이층의 창문으로 아래의 집 앞을 내려다보고 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차려입은 준석이 가방을 하나 메고 콧수염의 그랜져 승용차 옆에 쭈뼛쭈뼛 서 있다. 창문을 향해 다시한번 고개를 숙인 콧수염이 승용차에 올라탄다. 준석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차가 부르릉 출발한다. 당황한 준석이 부친을 올려다본다. 부친이 외면한다. 그러자 준석은 이내 자동차를 쫓아 뛰기 시작한다. 준석이 금방 숨이 넘어올 것처럼 열심히 뛴다. 준석의 부친이 긴장된 모습으로 이를 지켜본다. 30미터 쯤 달리던 차가 선다. 창문이 열리며 콧수염이 뭐라고 하는 것 같다. 준석이 뭐라고 대답한다. 이윽고 준석이 승용차에 올라탄다.

66. INT. 준석의 집안-NIGHT

그리고 다시 차가 떠나는 모습을 준석의 부친이 묵묵히 지켜본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방으로 뒤돌아 선다. 방에는 구슬픈 엔까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다. 준석의 아버지가 다시 술상 앞에 털썩 주저 앉는다. 소주를 한잔 따르더니 마시려다 말고 후하고 깊은 심호흡을 한다.

67. INT. 나이트클럽 안-NIGHT

양주 잔을 받고 있는 모습이 CU로 잡힌다. 화면이 빠지면 좀 분위기가 다른 나이트 클럽의 테이블에 준석이 앉아서 양주를 받고 있고 아주 덩치가 좋고 머리가 짧은 40대 초반의 사내가 따라주고 있다. 눈에 난 칼자국이 준석의 어린시절에 차를 운전하던 사람임을 말해준다.

눈칼자욱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으며)
쭉-한잔 해라!

준석이 받은 잔을 쥐고만 있다. 준석의 옆으로 역시 덩치가 좋은 두 명의 사내가 더 서있다.

니 귀에 좆 박았나? 한잔 해라카이...

준석이 마지못해 양주 잔을 입에 댄다. 준석의 눈이 사내가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는 것 보인다. 끝이 뾰족한 잭나이프다. 사내가 칼 끝을 자신의 양주잔에다가 슬쩍 담근다.

니는 약은 다 내한테서 얻어 묵고 충성은 엉뚱한데 맹세 했다메?

준석이 양주 잔을 내려놓는다. 사내가 칼끝을 까닥거리며 준석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다. 준석이 마지 못해 상체를 앞으로 내민다. 사내도 자신의 상체를 준석쪽으로 기울인다. 라이터를 켜서 칼 끝을 조금 달구더니

괴롭고 힘들어 해가 내가 니를 보살피 줏는데...인간이 은혜를
알아야 인간 아이가?

사내의 칼 끝이 준석의 귀 옆 구렛나루 아래에 쿡 박힌다. 준석이 움찔한다.

소독 했으니까 괜찮다.

사내의 칼끝이 천천히 아래로 그으며 내려간다. 준석의 목젖이 크게 움직인다.

앞으로 니캉 형두캉 얼마나 잘 나가는 지 볼끼다. 몸조심 해라이...

사내가 칼 끝을 뗀다. 벌어진 피하조직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가 봐라.

준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계속 피가 흐른다. 준석이 몸을 돌리는데

임마.

준석이 다시 쳐다본다.

아부지 잘 계시제?

녀석이 느글거리는 표정으로 웃고 준석은 몸을 돌려 나간다.

68. INT. 또다른 나이트클럽-NIGHT

당시의 부르스 음악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TICKET TO THE TROPIC이 감미로운 선율을 타고 스테이지 위에 퍼지고 있고 카메라가 DJ석으로 이동하면 모델처럼 옷을 잘 차려입은 DJ하나가 레코드 판들을 정리해 교대 준비를 하고 있다. DJ가 버튼을 누르자 DJ들의 이름이 새겨진 전광판에 이주성이라는 이름의 불이 꺼지고 김준이라는 이름에 불이 들어온다. 이어 부르스 음악이 낮아지면서 강한 비트와 함께 새로운 DJ의 멘트가 흘러 나온다. 힘차고 약간은 허스키한 강한 멘트와 함께 강력한 사운드의 댄싱곡이 울려 퍼진다. 스테이지에 남녀들이 하나둘씩 올라와 춤을 추기 시작하고 DJ 또한 음악에 맞추어 신나고 화려하게 몸을 흔들어 댄다. 카메라가 차츰 DJ에게 다가가자 양복을 좀 헐렁하게 입고 열심히 흔들어 대는 건 다름아닌 중호다. 화려한 몸동작으로 계속 춤이 이어진다.

69. EXT. 교도소 정문-DAY

교도소의 문이 열리며 짧은 머리를 한 동수가 밖으로 나온다. 눈이 부신지 햇살을 손으로 가리는데 누군가 생두부를 쓱 내민다. 동수가 쳐다보자마자 고개를 숙인다.

동수아버지
(정색을 하고)
빨리 묵어라.

동수가 잠시 가만 있더니 두부를 받아든다. 카메라가 빠지자 멀리 차안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70. INT. 고급 중식당-DAY

눈칼자욱과 동수 그리고 눈칼자욱의 부하들 4명이 합석한 가운데 가운데 회전식 원판이 있는 커다란 테이블 위에 중국식코스 요리가 잔뜩 차려져 있다. 눈칼자욱과 동수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다. 눈칼자욱이 동수에게 빼갈을 한잔 권하면 동수가 두손으로 받는다.

눈칼자욱
남들은 내보고 행님 등에 칼을 꽂는니 배신이니 해도 그거는
다 내 모함 한다꼬 하는 소리다.

동수가 잔을 비우고 눈칼자욱에게 따라준다.

조직이 달랑 하나만...그것도 망구 오래 있으믄 우째 되겠노?

동수가 대답을 않는다.

썩는다꼬. 썩어...더구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도 몬하고 그
자리에 고여 있으믄...뭐 당연한 거 아니겠나?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안 그렇나?

동수
(조심스럽게)
예...

눈칼자욱
나는 솔직히 행님한테 배신 때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단지
내가 원하는 거는 항상 1등만 있으믄 썩으니까 내가 2등이 되가꼬
1등을 정신도 차리게 하고...또...쫌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건기라.

둥수가 입장이 난처한 듯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

니...의리가 뭔지 아나?

동수가 고개를 들어 쳐다본다. 눈칼자욱이 지갑에서 천만원 짜리 수표를 꺼내 펴 보이며

이기...의리다.

동수의 눈에 반짝 빛이 난다.

조직은 의리가 생명이고 또 의리가 있어야 힘이 생기는데...
이기 바로 의린기라.

눈칼자욱이 동수의 표정에서 동요의 기색을 발견하고는 수표를 회전판 위에 놓고는 간장병을 올려 놓는다. 그리고 회전판을 돌리자 간장병에 고정된 수표가 반대편 동수 쪽으로 간다. 식사를 하던 부하 녀석들도 모두 눈이 움직이는 수표를 따라간다. 수표가 동수 앞에 이르자 눈칼자욱이 판을 잡는다. 동수가 눈칼자욱과 수표를 번갈아 본다.

필요 할기다. 써라.

동수의 얼굴이 붉어진다.

71. INT. 준석의 집-DAY

준석 부친의 영정사진 앞으로 향이 타올라 간다. 준석의 곡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면이 넓어지면 조문객과 맞절을 하고 있는 준석의 모습이 full로 잡힌다.

72. EXT. 아파트 앞-DAY

빠른 속력으로 카메라 앞을 지나 아파트 주차장에 검은 벤츠 세단이 들어선다. 이미 십여대가 넘는 각종 고급 차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즐비해 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십수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차가 멈추면 조수석의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가 나와 뒷좌석의 문을 열어준다. 문에서 콧수염을 기른 다부진 체격의 사내가 내린다. 흩어져 있던 모든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콧수염이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가자 모두들 깍듯이 상체를 숙여 머리를 조아린다.

73. INT. 준석의 집-DAY

준석의 곡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콧수염이 영정에다 두 번 반 절을 하고 준석과 맞절을 한다. 절을 끝낸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서로 마주 앉는다. 상복을 입은 준석이는 초췌하고 눈이 부어있다. 콧수염이 준석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서자 옆에 있던 중호가 모시고 방을 나간다.

중호(O.S.)
여기 한상 차리주세요.

콧수염이 음식이 차려진 곳으로 가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콧수염은 그들 중 나이가 든 원로들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원로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CUT TO

가부좌를 틀고 있는 준석의 옆에 동수가 나란히 앉아있다.

동수
서울에 있다카드라...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표정이
좀 찝찝해 지더니)...못올 거 같더라.

준석
(자조 하듯 미소를 띠우며)
차라리 잘됐다. 진숙이 지도 지 갈길 가야지.

동수
눈좀 붙이라...

준석
(충혈된 눈을 깜박이며 쓸쓸한 미소를 띤 채)
동수야. 인자 내는 고아다.

동수
(위로하려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니는 어른아이가.

동수가 준석의 어깨를 툭 치고는 일어서 방을 나간다.

준석
동수야.

동수가 돌아본다.

아부지 염 잘해주서 고맙다.

동수
우리 아부지한테 전하께...

그리고 방을 나가려던 동수가 걸음을 멈춘다. 그리곤 다시 되돌아와 준석의 앞에 쪼그리고 앉는다. 그리곤 한참 동안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주저한다. 준석이 그런 동수를 멍한 눈으로 쳐다본다. 동수가 어렵게 입을 연다.

내는...(준석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내일부터 상곤이 행님 밑으로
들어간다.

그 말을 들은 준석이 푹-하고 한숨을 쉰다.

준석
그게는 건달 아이다...양아치다. 모르나? 꼬마들 한테도 약파는거...

동수가 대답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동수
..상관..없다...

그리고 동수는 일어서 방을 나간다. 준석이 멍하게 앉아 있더니 눈길을 돌려 영정사진을 쳐다본다. 작은 사진을 확대해 놓아 입자가 거칠다. 준석이 멍하게 사진을 계속 쳐다본다.

74. INT. 준석의 집-NIGHT

준석 부친이 기거하던 방안. 낡은 일본 레코드 판이 턴테이블 위에 올려진다. 조심스럽게 레코드 바늘을 돌아가는 판 위에 올려 놓는다. 지직 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시 후 구슬픈 곡조의 일본 엔까가 흘러나온다. 준석이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 중이다. 그 중에 특히 일본 레코드판들이 많다. 판들을 이리저리 훑어보는데 사진이 한장 툭 떨어진다. 4살 쯤으로 보이는 준석이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체구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해변가에 서 있는 모습이다. 준석이 씩-웃고는 손바닥으로 사진에서 먼지를 닦아낸다. 사진을 위 호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는 판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 그러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춘다. 그리고 서서히 흐느끼기 시작한다. 차츰 어깨가 들썩이며 엔까 속에서 준석의 흐느낌이 커져 간다.

FADE OUT
FADE IN

75. EXT. 준석의 달리는 차안-DAY

승용차의 라디오에서는 현철의 노래 내마음 별과 같이가 흘러 나오고 뒷좌석에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1988년 도로가 전경이 한참동안 보여진다. 길거리의 시청 광고탑과 육교 계시판 그리고 현수막 등에는 88올림픽이 몇일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글귀들로 가득차 있다. 차창 밖을 내다보는 시선이 계속 되다가 부산역 근처를 지나는데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 막 제대를 한 듯 예비군 마크가 달린 군복을 입은 상택의 모습이 언듯 스친다. 프레임 안으로 선그라스를 낀 남자의 옆모습이 확 들어오며

준석
어! (고개를 돌리며 뒷쪽을 보더니) 야! 차 돌리라!

76. EXT. 부산역 버스 정류장-DAY

예비군복을 입은 상택이 좌석 버스를 타려고 버스 쪽으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확 앞으로 내달아 상택 앞에 급정거를 한다. 상택이 이게 뭔가 싶어 어리둥절 하는 사이에 앞차의 상석에서 내린 세련된 복장의 준석이 상택에게로 다가온다. 준석의 얼굴을 보는 상택의 눈이 커진다. 아르마니 양복에 머리는 일본 사람처럼 라면곱슬을 한 준석이 얼굴에 함박 웃음을 지으며

준석
(고함을 치듯)
친구야! 상택아!

77. INT. 대포집-NIGHT

상택과 준석이 쨍하고 소주잔을 마주치곤 기분 좋게 원샷을 한다. 탁-하고 잔을 내려 놓고는 서로의 잔에 한잔씩 더 따른다. 주변의 테이블도 준석과 일행인 건달들 십여명으로 북적이고 있다. 숯불판 위에는 소의 양(위)과 대창이 지글지글 연기를 내며 타 들어가고 있다. 둘 다 이미 여러 잔을 기울인양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있다.

준석
(자기잔을 건네며)
축하한다. 수색대 같으믄 좆빻이 칫겠네 씨바...나도 6방인가 뭔가
받아 봤는데 그거 건달이 할 짓이 못되더라.

상택
중호하고 동수는 어째 지내노?

준석
(표정이 좀 찝찝해 지더니)
니..중호 부모님이 뭐했는지 알제?

상택
(한잔 들이키고는)
깡통시장에서 수입품 코너 했다아이가.

준석
아이다. 밀수했다.

상택이 놀란 표정을 짓자

저번달에 크게 걸리가꼬 부모님은 둘다 구속되고 중호는 지금
숨어있다.

상택
(잔을 받으며)
중호도 같이했나?

준석
그기 아이고...경찰이 즈그가 미리 정보로 알고있는 물건을 못
찾았는데...중호가 혹시 아는가 싶어서 귀찮게 하니까 절에 숨었다.

상택
(한잔 들이키고선 잔을 건네며)
언제 까지 숨어 있어야 되노? 와- 그거 골치 아프네.

준석
(잔을 받으며)
괜찮다. 고마 쪼메 있으믄 짜바리들도 포기 할끼야.

준석이 잔을 꺾는 동안 상택이 취기가 도는지 눈을 꿈벅거리는게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애써 안주를 한
점 집어 먹으며

상택
그거는 그렇고...니는 인자 약 완전히 끊었는가베?

준석
(징하단 표정이 되어)
말도마라...밑에 놈들이 치고 올라 오니까 좆도 자존심 상해가
이를 악물고 끊었다 아이가. (자기 뱃살을 툭 치며) 그래가 이래
배도 나오고 했지만서도...

상택
(다시 준석의 잔에 소주를 따르며)
잘했다.

준석이 다시 원샷을 하고는

준석
(상택에게 잔을 따르며)
노태우가 좋아하는 보통사람들 생각에 건달들이 난잡하게 사는거
같아도 안 그렇다.

상택이 진지한 표정이 된 준석을 힐끗 쳐다본다.

약하는 놈. 여자 있는 놈. 술 많이 쳐 묵는 놈한테는 일을 안
준다. 일을 해야 크는데 그런 놈들은 아예 일을 안주는 기라.
그만큼 일을 조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상택
(한잔을 다시 원샷하고 약간은 삐리한 어투로)
씨~바. 꼭 무슨 도닦는 사람들 같네...

준석
어느 조직이건 간에 지 하고 싶은 짓 다하고 살믄 클수가 없는기라.
갤국에 도태되고 마는기라.

준석의 말을 듣는 상택이 취기가 많이 돌았는지 표정이 영 곱질 않다.

상택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훌룡하네...좆도.

준석의 눈꼬리가 올라간다.

야, 깡패가 깡패지 무슨 철학자처럼 이야기하노? 느그같은 깡패는
갤국에 깡팬기라.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건달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춘다.

불쌍한 사람들 돈 뜯어묵고 사는 기 깡패 아이가? 내 말이 틀릿나?

모두들 상택을 쳐다보는데 저쪽 테이블에 앉은 두 녀석이 상택을 향해 눈을 부라린다. 준석이 그 둘을 보고는

준석
(단호한 어조로)
느그 둘이 이리 와봐.

건달1,2
(화들짝 놀라며)
예. 행님.

두 녀석이 잽싸게 뛰어와 준석 옆에 차렷자세로 선다. 둘을 올려다보는 준석의 눈이 매섭다.

준석
(나즈막히 살벌하게)
느그 돌았나?

두 녀석이 찔끔한다.

어데서 눈을 히번덕거리노? 느그 눈까리 내가 접수하까?

건달1,2
(완전히 쫄아서)
죄송합니다. 행님.

준석

(주위의 부하들을 향해)
야- 느그들 잘들어라.

단체로
예. 행님!

준석
(상택을 가리키며) 이분은 내 제일 친한 친구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다. 다같이 복창해라! "우리는 깡패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피를 빨아 묵고 산다!" 복창!

단체로
우리는 깡패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피를 빨아 묵고 산다.

상택의 표정이 미안함으로 달아오른다.

좋아. 앞으로 내가 없을 때라도 이 형님을 보게 되믄 인사를 학실이
한다. 알겠나!

단체로
예, 행님.

준석
(옆에선 두 녀석을 향해)
느그는 쳐 묵을 가치가 없는 놈들이다. 나가서 차 트렁크에 앉아가
좆잡고 반성해라. 나가!

건달1,2
예. 행님.

둘이서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간다. 다시 준석과 상택이 마주보는데

준석
상택아. 내가 어저께 한일 하나 얘기해 주까?

상택
...미안하다.

준석
괜찮다. 친구끼리 미안한거 없다. 대신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상택
해봐.

준석
어떤 부장검사가 있었는데 똑똑한 쫄따구 검사 하나를 잘 키울라꼬
뒷조사를 해 보이까 글마 마누라가 제비새끼하고 바람이 난기라.

INSERT-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장검사가 인사고과 파일철을 뒤적이다가 옆에 놓여 있는 사진-한 30대 초반여인과 잘생긴 남자가 택시를 타는 장면과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장면을 몰래 찍은-을 들어본다. 그리곤 수화기를 든다.

그 부장검사 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순데 그 교수가 우리한테
부탁이 왔다 아이가. 그래가 갤국 내한테 오다가 떨어짓지...

INSERT-부장검사와 느낌이 비슷한 교수가 전화를 든 채 메모장에 주소-부산시 동래구 연산동...-를 쓰는 모습.

즈그가 움직이믄 우짜든지 흠집이 생기니까.

상택이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친구야, 그라이까 내가 우쩨겠노? 고마 쇠파이프 들고 가가꼬 그
제비새끼 딱 빙신 만들어놨다 아이가....

INSERT-차 한대가 골목을 들어서자 한 사람이 가로막아 차를 세우고 5명의 쇠파이프를 든 건달이 차의 유리를 박살 내고 제비를 끌어내 풀스윙으로 척추를 강타한다.

그런기 내가 하는 일이다.

상택과 준석이 서로를 마주보고 한동안 말이 없다.

78. EXT. 상택의 집 앞-NIGHT

준석의 로얄싸롱 승용차가 상택의 집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온다. 차의 뒤 트렁크가 열려있고 그 속에 아까 상택을 째려봤던 두 건달 녀석이 돌부처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 차가 끽-서자 트렁크의 덮개가 녀석들의 뒤통수를 텅-때린다. 녀석들은 그래도 꼼짝 않는다. 차에서 술에 취한 준석과 상택이 내린다. 둘이서 포옹을 한다.

준석
(혀가 약간 꼬부라져서)
인자 언제든지 아까 번호로 전화하믄 내캉 연락이 된다. 친구야.
자주 보고 살자.

상택
(역시 혀가 꼬부라져서)
그래. 내 전화하께...고맙다 오늘...잘 가라.

준석
(다시 차로 들어가며)
또 보자.

상택
야, 준석아.

준석이 쳐다본다. 상택이 눈으로 뒷 트렁크의 녀석들을 가리키며

인자 저 친구들 나오라 케라.

둘이 묵묵히 앉아있다.

준석
이 새끼들...느그 고마하까?

건달1,2
아..아입니다. 행님.

준석
(장난기 섞인 웃음을 지으며)
괜찮단다. (얼른 차에 타고선) 출발!

준석의 차가 부웅~하고 떠난다. 다시 뒤 트렁크의 뚜껑이 녀석들의 뒤통수를 텅~하고 때린다. 상택이 미안해 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 멀어지는 준석의 차가 안전턱을 넘는다. 다시금 텅~텅~소리가 난다. 상택이 결국 소리내서 웃고 만다.

79. EXT. 절의 전경-DAY

그리 크지도 않고 깊은 산중에 자리잡아 오히려 아담해 보이는 절의 전경이 보인다. 멀리서 목탁 소리와 염불 소리도 울려 퍼진다.

80. INT. 절방-DAY

스님 복장을 입은 중호가 귀에 헤드폰을 꼽은 채 말똥말똥 눈을 뜨고 팔 베개를 하고 누워서는 천장을 올려다 보고 있다. 워낙 불륨을 크게 해 놓아 헤드폰에서 락음악 소리가 새어 나온다. 그 옆에 방구석에는 이제 막 20살을 넘어 보이고 100Kg이 넘어 조폭이라기 보단 씨름 선수처럼 보이는 좀 촌스럽게 생긴 녀석 하나가 앉아 자신의 손바닥보다도 작은 전자 오락기를 잡고 열심히 버튼을 눌러대고 있다. 콧잔등에는 땀까지 송글송글 맺혀 있다. 중호가 오락을 하고 있는 녀석을 힐끗 쳐다본다. 코키리 새끼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다. 다시 눈길을 돌리더니 이번에는 떳던 눈을 갑자기 꼭 감는다. 그리곤 잔뜩 인상을 찌푸리더니 헤드폰을 벗고 으아아~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는다. 뚱뚱한 녀석이 쳐다본다.

중호
짱가야!

짱가
예, 행님!

중호
뭐 좀 없나?

짱가
뭐 말입니까? 행님.

중호
놀 거.

짱가
(잠시 생각하더니)
오락 프로그램 바까 오까예? 행님.

중호가 짱가를 쳐다본다. 짱가가 멍뚱멀뚱 쳐다보자

중호
(포기한 듯)
아이다.

그리곤 다시 중호가 멍하게 앉아 있다.

81. EXT. 스포츠센타 전경-DAY

수영장과 헬스클럽 그리고 볼링장이 함께 있는 종합 스포츠 센타 건물이 보인다.

82. INT. 볼링장-DAY

볼링장의 각 레인들은 빈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볼링장은 누가 보아도 영업이 잘 되는 것 처럼 보이고 방금 스트라이크를 쳐서 게임을 끝낸 사람 하나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 가는데

카메라가 따라간다. 사무실이라고 푯말이 붙은 방을 지나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걸음을 멈춘다.

비겁한건달(O.S.)
(양아치쪼의 목소리로)
그래서 지금 이 좆만한 것들 보내가꼬 내를 협박하는 기가 뭐꼬?

CUT TO

빠찡고 사무실 안. 큰 업무용 책상과 길다란 소파가 놓여있다. 7명의 건달들이 소파 뒤에 서서 버티고 있고 준석과 도루코가 소파에 앉아 있다. 상석에 앉은 30대 후반의 좀 비겁한 인상을 가진 건달이 전화 수화기를 든 채 고함을 버럭버럭 질러댄다.

오늘 요게 온 놈들은 다 개구리 씹창을 내서 보낼끼니까 그리 알아라.
좆겉은 새끼들이 끼니 때마다 밥쳐묵이 주이까 눈에 보이는 기 없는
가베.

준석이 비겁한 건달이 하는 꼴을 물끄러미 지켜본다. 비겁한 건달이 쾅 소리나게 전화를 끊고 씩씩댄다.

(준석을 향해)
야이 참새 좆만한 새끼야. 니 지금 누구한테 공갈을 때릴라카노?
내가 방금 전화해 보이까...

준석
    (말을 자르며)
죽을 죄를 짓습니다. 행님. 너그럽게 용서해 주이소. 저희는 고마
시키는데로 왔다 아입니꺼.

그러자 비겁한 건달이 좀 의외라는 표정이 되며 다소 누그러지는데

(뒤에 선 녀석들을 향해)
느그는 다 나가 있어라.

도루코와 준석을 제외한 건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간다. 비겁한 건달이 `이제 좀 먹히는구나'하는 표정이 된다. 다들 나가고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자 준석이 비겁한 건달을 쳐다본다. 이내 품속에서 날이 시퍼런 칼을 하나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다. 매서운 눈으로 비겁한 건달을 쳐다본다.

   (돌변한 태도로)
어이. 씨발새끼. 잘 들어라.

비겁한 건달이 꿈쩍 놀란다.

아아들 보는데서 니를 개쪽주믄 교육상도 나쁘고 그동안 니 위신도
있고 해서 내가 나가라켔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비겁한건달
뭐...뭐라꼬...이자석이 진짜...

준석
입 닥치고 마자 들어라.

비겁한 건달이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닫는다.

(매우 진지하고 매서운 어투로)
행님 동생들 피흘리가메 모은 돈으로 인간답게 살아볼라고 사업장을
차릿다. 여기서 나온 돈으로 선배들 옥바라지 하고 후배들 입에 풀칠
이라도 할라꼬 한 짓이라 이말이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하나 하기가
얼마나 힘든줄은 알고 있제?

비겁한 건달이 한풀 꺾인 듯 잠잠한데

인자 그마이 돈 삥땅 해 묵었으믄 니도 할만큼 했다. 내일 아침에
선배들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라. 니 목이 우찌 될지는 나도 모른다.
니를 몇번 담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왔다. 마지막으로 선배에 대한
예우로 그냥 보낸다.

비겁한건달
   (완전히 기세가 꺾여)
어이...봐라. 동생...

준석
오늘 안으로 정리해가 나가라. 내일부터 사업장은 내하고 도루코가

관리한다.

비겁한 건달의 이마에 삐적삐적 땀이 흐른다.

83. EXT. 고급 빌라-NIGHT

카메라가 누군가의 싯점으로 고급 빌라의 커다란 유리창에 쳐진 엷은 커튼 사이를 들여다 보면 60이 넘고 꽤 품위가 있어 보이는 영감이 침대에 누워있고 속옷을 입은 채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늘씬한 여자가 남자의 옷을 벗겨주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또다른 여자는 자신이 옷을 벗고는 화장실로 향한다.

84. INT. 고급빌라 침실-NIGHT

화장실로 들어온 여자가 다급하게 자신의 팔뚝에 고무줄을 감아 혈관을 찾아 낸 뒤 일회용 주사 바늘을 꼽아 넣는다. 천천히 약을 다 투여하는 동안 여자는 황홀경에 빠져드는 듯 몸까지 부르르 떤다. 주사를 다 놓고는 천천히 뒤로 돌아 침대로 향하는데 이미 한 여자는 양팔을 벽에 기댄 채 영감의 얼굴 위에 앉아 신음을 하고 있다. (이때부터 카메라는 스테디캠이다)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는 자연스럽게 얼굴이 남자의 사타구니 쪽으로 향하는데 이때 프레임 속으로 손이 쑥 들어 오더니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한쪽으로 내팽겨 친다.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찰칵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기의 후레쉬가 터지기 시작한다. 여자가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굴러 자빠지고 이번엔 구둣발이 사정없이 남자 얼굴에 앉아있던 여자의 옆구리를 차 버린다. 여자가 헉-하며 숨이 막힐 듯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카메라의 프레임이 아직 뭐가 뭔지 몰라 동태 눈을 하고 위를 올려다 보는 영감을 잡는다. 카메라의 시점이 바뀌어 영감의 흐릿한 눈에 누군가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어지는 사진기 후레쉬의 섬광 속에서 흐릿한 얼굴이 말을 한다.

동수
이 새끼 집에 연락해가 내일 아침 까지 현찰로 10장 준비하라 해라...

영감의 시선에 차츰 동수의 얼굴이 제대로 잡힌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입술을 움직이자 동수의 구둣발 뒤꿈치가 사정없이 영감의 사타구니 쪽을 내려 찍어 버린다. 영감이 비명을 지른다.

85. INT. 준석의 사무실-DAY

부산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카메라가 옆으로 조금 이동하면 몸을 편안히 뒤로 파묻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 준석의 모습이 보인다. 뭔가 썩 마음이 편치 않은 모습으로 앉아 있더니

준석
요새 호텔에서 삭스핀 달라고 지랄 안하나?

도루코
요즘 물량이 딸리가꼬 난리란다. 차라리 야쿠자한테 사오는기
나겠다고 지랄들 아이가.

준석의 입가에 미소가 인다.

준석
2주 후에 풀기로 했으니까 그때 까지 단속 잘하고. 참...창고 영감

아들이 장가갔단다. 아아들 보내가 인사챙기라.

도루코
그라하지 뭐.

이때, 전화벨이 울린다. 부하건달이 수화기를 집어든다.

(건달식 목소리로)
여보세요?...예...예...(준석을 보고) 정상택이라는...

준석이 수화기를 받아 든다.

준석
(반갑게)
친구야! 어데고?

86. INT. 원탁형 가라오케-NIGHT

당시에 유행하던 스타일대로 타원형의 길다란 테이블이 홀을 가로지르고 있고 중호가 능숙한 솜씨로 춤을 춰가며 리듬이 신나고 당시 유행하는(김흥국의 호랑나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옆에 있는 짱가는 연신 템버린으로 테이블과 자기 머리통을 번갈아 때려가며 박자를 맞추고 있다. 이윽고 중호의 노래가 끝나고 중호가 박수를 받으며 좌석으로 가 앉는데 준석과 상택 그리고 도루코가 앉아 있는 곳에 합석한다.

준석
얼마나 있노?

상택
(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계약은 3년인데 잘하믄 몇년 더 있다가 올지도 모른다.

중호
(술을 한잔 들이키고는)
와~ 임마 말하는 것좀 봐라. 잘 하믄 이란다. 그라믄 잘 못하믄
다시 3년 만에 우리 볼거가?

상택
(웃으며)
그래 되나? 미안하다.

중호
좆마, 출세 했다고 친구들은 완전히 신경 껏뿟는 가베.

얼굴이 많이 달아오른 준석이 민망해 하는 상택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준석
제수씨는 어떤 여자고?

상택

(잠시 생각을 하더니)
착하다.

상택이 좀 쑥스러워하는 미소를 말없이 보고 있던 준석이 상택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친다. 상택이 준석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

준석
친구야. 축하한다.

상택이 준석의 자신도 준석의 가슴을 툭 친다. 그리고 둘이 의미 있는 미소를 한번 교환 하더니 준석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라오케 마스터격인 트랜즈섹슈얼(여자로 성 전환한 남자:이후 `트랜즈'로 칭함.)에게

가시나야! 오빠야 십팔번 하나 꼽아봐라.

트랜즈
(오버하듯)
와~ 진짜가. 우리 오빠야 그거 부르문 너무 멋있드라.

준석
시끄럽다 씨발년아. 빨리 테이프나 박아라.

트랜즈
(구식 가라오케 테입을 끼우며 혼잣말 하듯)
오빠야는...참...와 욕을 하고 그라노...

이윽고 전주가 시작된다. 준석이 일어나 에코우가 많이 들어간 음성으로 함께온 무리들을 향해

준석(ECHO)
이 노래를 사랑하는 내 친구 정상택씨의 갤혼을 추카하맨서...
외국으로 멀리 떠나는 상택이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맨서...한곡. 하겠읍니다.

상택과 동생 건달들이 일제히 와~하며 박수를 친다. 반주에 맞추어 준석이 영어로 "MY WAY"라는 곡을 부르기 시작한다. 이때, 상택과 중호 앞으로 온 트랜즈가 자신의 조그만 유방을 꺼내 상택 앞에 드리민다.

트랜즈
(거친 음성이지만 여성스럽게)
봐라, 오빠야. 내 가슴 예쁘제? 그자?

상택의 표정이 사뭇 찝찝해진다. 상택의 손을 덥썩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며

자 만지봐라.

상택이 놀라며 손을 뺀다. 그러자 트랜즈가 픽-토라지더니

참~ 오빠야는...무슨 벌레 만지나?

토라진 트랜즈가 기분이 상했는지 가슴을 도로 여미고 다시 홀 중앙으로 나간다. 잠시 황당하고도 재밌다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트랜즈를 지켜보던 상택이 중호에게

상택
쟈아들은 원래 저래 아무 한테나 보여주나?

중호
여자로 인정해 달라 그거다. 맨날 호르몬 주사 맞고 하니까 가슴이
쪼깨 나오는데 그기 그래 좋은 갑드라...좀 안됐다 저것들...

상택이 새로운 사실이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

사람이 다 그렇다 아이가...지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거.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중호가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준석이를
보며) 점마도 그렇고...

상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를 한잔 들이킨다. 준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굵고 멋있게 흘러나온다. 더구나 발음 또한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상택
요새 동수는 우째 지내노?

중호
안좋다. 둘이...동수가 즈그 조직에서 많이 컷는 갑드라.

상택
진짜가?

중호
얼마전에 동수 아아들한테 칼맞아가꼬 준석이 동생뻘들 둘이가
병원에 갔는데...준석이가 한번 베루고 있는 갑드라.

상택의 표정이 씁쓸해 지고 다시 눈길을 준석에게로 돌리자 노래는 반주가 차츰 고조되고 이에 맞춰 준석은 한껏 목청을 돋워 노래를 부른다. 홀 안의 분위기가 제법 숙연해 졌다. 상택은 눈을 지그시 감고 진심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준석을 쳐다본다. 누가 뭐래도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겠노라는 비장하면서도 자조적인 감정이 흘러 넘친다. 트랜즈도 더 이상 탬버린을 치지 않고 감동 어린 눈길로 준석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오케스트라 악단의 와르릉거리는 반주와 함께 웅장한 노래가 긴 여음으로 끝을 맺자 홀 안에는 박수가 터진다. 휘파람을 부는 동생 건달이 있고 상택과 중호도 감동어린 박수를 친다. 짱가가 정말 감동을 받은 모양인지 거의 울상을 하고 준석에게 다가온다.

짱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머리를 조아리며)
행님! 진짜 미국사람 같습니더. 너무 멋지십니더 행님!!

순간 팍-하고 후레쉬 불빛이 터진다.

87. INT. 예식장-DAY

팍-하고 후레쉬 불빛이 터지고 나면

사진사
  (숙달된 솜씨로 필름을 갈아 끼우며)
자~ 가족 사진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은 신랑신부 친구나
선후배 분들 나오세요.

단상에 자리잡고 있던 가족 친지들이 우르르 흩어지고 그 자리에 남녀 친구들이 모여든다. 예복을 입은 상택과 혜경의 모습이 보인다. 상택이 친구들에게 악수를 받으면서도 자꾸 주변을 돌아본다. 뒤에 서 있는 중호에게

상택
준석이 못봤나?

중호
응. 아마 못온 거 같다.

상택이 그래도 주위를 이리저리 둘러본다.

88. EXT. 예식장 앞-DAY

준석의 승용차가 예식장 앞에 서자 앞 좌석에서 짱가가 내려 뒷좌석의 문을 연다. 내리려던 준석이 운전하고 있는 녀석에게

준석
큰 형님이 몇시까지 오라했노?

운전석
  (손목시계를 보며)
네십니다. 행님.

준석이 좀 갈등을 하더니 지갑을 꺼내어 십만원권 수표 두장을 꺼내어 짱가에게 주며

준석
니가 대신 가라. 이걸로 카드사서 내 이름으로 축하한다고
몇자 적고...그라고...(좀 고민을 하더니) 니 원앙새 알제?

짱가
원한새예?

준석
짜슥아. 원한새가 아이고 원앙새. 나무로 깎아가꼬 목에다 실
같은 거 감아 놓은거.

짱가
(이제야 알아 먹은 듯)
아~ 예 압니다. 원앙새.

준석
그래. 그거 사가꼬 잘 포장해서 선물하고 온다. 내가 전한다꼬.

짱가
(90도로 인사를 하며)
알겠습니다. 행님.

짱가가 뒤로 돌아 뛰어가는데

준석
임마.

짱가
(돌아보며)
예. 행님.

준석
니 이름 아나?

짱가
(좀 당황하여)
모...모릅니다. 행님.

준석
예식장 입구에 써 놨다. 보고 글씨 예쁘게 써라.

짱가
예. 행님.

다시 짱가가 뛰어가고 준석이 녀석의 뒤뚱거리며 뛰는 모습을 불안하게 보다가

준석
가자.

준석의 차가 출발한다.

89. INT. 예식장 안-DAY

예식장 여직원이 상택과 혜경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떼고 다음 예식을 치를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붙이려고 한다. 이때, 짱가의 손이 직원이 들고 있던 두 장의 종이를 가로 채더니

짱가
(숨을 헐떡이고 땀을 흘리며)
어떤기 두시꺼고?

다행히 여직원이 상택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준다. 짱가가 그 것을 테이블 위에 펼쳐 들자 "정주완씨의 장남 정상택"이라고 쓴 게 보인다. 짱가가 씩씩거리며 카드에다가 뭔가 적기 시작한다.

CUT TO

상택이 폐백 옷을 입고 동생 규택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짱가가 불쑥 앞에 나타나 90도로 인사를 한다.

짱가
축하드립니다. 행님. 준석이 행님께서 너무 바쁘시가꼬...
(색동종이로 포장된 선물상자와 카드를 내밀며) 이거...

상택
  (상자를 받으며)
어~ 그래... 식사나 좀 하고 가지?

짱가
아입니다. 행님. 그라믄 저는 이만...

짱가가 뭔가에 쫓기기라도 하듯 계단을 내려가고 상택이 카드를 열어본다. 카드를 보는 상택의 표정이 황당해 진다. 카메라가 카드를 CU로 잡자 아주 못썼지만 성의 있는 글씨체로

"정주완아! 결혼을 진심으로 축카한다. 영원안 친구 준석"

카드 위로 비행기가 커다란 엔진 소음이 들리고 다음씬으로 연결 된다.

90. EXT. 공황 활주로-DAY

점보 제트기 한대가 이제 막 활주로 위를 떠서 상공을 치솟아 올라간다. 카메라는 최대한 긴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이륙하여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뒷모습을 잡아 준다. 제트 분사열 때문에 강한 아지랭이 효과를 내며 비행기가 멀어져 간다. 화면 하단에 조그맣게 5년후라는 글귀가 떴다가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화면에는 아지랭이 속에서 다른 비행기의 점점 다가오는 전방 모습이 가까워 진다. 커다란 엔진 소리를 내며 바퀴의 강한 마찰음과 함께 공항의 활주로에 내려 앉는다.

91. EXT. 경부고속도로 부산 톨게이트-DAY

자동차 타이어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멈춘다. 카메라가 톨게이트에서 돈과 티켓을 내는 상택에게 boom up한다. 30대 중반의 얼굴에 안경을 썼는데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매우 무겁다. 요금을 지불한 후 차가 다시 출발한다.

92. EXT. 조그만 바닷가-DAY

해변가에 서 있는 상심이 가득한 상택의 눈은 멀리 수평선 끝에 고정되어 있는데 어느새 담배가 다 타들어 간 것을 알고 손가락을 튕겨 담배불을 끈다. 담배재와 함께 타지 않은 담배 속이 바람에 흩어져 멀리 날아간다. 상택의 시선이 문득 뒤쪽을 본다. 멀리서 넥타이를 메지 않은 양복을 입은 중호가 다가 오는 게 보인다. 상택을 보고는 말없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인다. 상택이 웃으며 손을 든다.

93. INT. 달리는 차안-DAY

중호가 전방을 응시한 채 담배를 피우며

중호
참...그때 살벌했지...그 시기에 총 40명 이상이 구속되고 5명인가가
죽었지 아마. 나는 매일 준석이하고 전화로만 통화를 했는데 일단
글마가 받으은 그걸로 안심인기라. 살아 있으니까. 한번씩 딴놈들
한테 전화가 오믄 확 쪼리고 그랬지...혹시 장례준비 해라 칼까봐..

상택이 잠자코 중호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

니도 동수 안다 아이가...절대로 안 만만하거던.

중호가 입맛이 쓴지 피던 담배를 끈다. 이번엔 상택이 담배를 피워문다.

상택
처음에 동수가 그쪽으로 간 이유가 뭐고?

중호
(두 손을 뒤로 해 팔베개를 하며)
내 생각에는...

상택이 담배를 한모금 빨아들인다.

준석이 하고 같이 있어봐야 갤국 2등아이가.

중호가 상택을 쳐다보자 상택이 후~하고 길게 담배 연기를 뿜어낸다.

니가 떠나고 다음 핸가 그 다음 다음 핸가 그랬을 끼야...

94. INT. 호텔 사우나-DAY

카메라 렌즈를 향해 샤워 물줄기가 쏟아지듯 덮친다. 등판이 온통 화려한 문신으로 뒤덮혀 있는 것이 CU에서 dolly out하면 그 몸에 비누칠을 해 주는 두 덩치 역시 온몸에 칼자국과 문신들이 그려져 있다.

그때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이다 뭐다 해가꼬 조직 대가리들을
아무 죄나 다 엮어가 집어 넣기 시작 했거든...

샤워기 아래서 고개를 숙인 채 몸에 물줄기를 받고 있는 콧수염은 지그시 눈을 감고 서 있고 콧수염의 몸 구석구석을 정성스레 비누칠 하는 모습이 마치 옛날의 왕을 모시는 몸종들을 연상케 한다.

95. INT. 동수의 숙소-DAY

거실에서 동수가 전화 수화기를 내려 놓는다. 그리고 뒤를 돌아 보자 눈칼자욱과 몇몇의 잘 차려 입은 사내들이 묵묵히 카드를 하고 앉아 있다.

동수

벌써 떠났답니다.

그중에 눈칼자욱이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카드패를 뒤집어 보인다.

동수
(입구쪽을 향해)
아아들 대기 시키라.

입구쪽에 서 있던 건달이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밖으로 나간다.

96. EXT. 호텔 입구-DAY

두 대의 승용차와 경찰마크가 새겨진 봉고차 한대가 호텔 입구에 멈춰 선다. 세대의 차에서 거의 동시에 사복차림의 남자들 7명과 경찰복장을 한 5명의 남자들이 튀어 나온다. 점퍼 차림의 사복을 입은 남자들 중 말끔하게 양복(30대 후반)을 차려 입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아까 비누칠을 해주던 덩치들과 비슷한 건장한 체구들이다. 모두들 뛰지는 않지만 빠른 걸음으로 호텔 안으로 들어간다.

97. INT. 호텔 프론트-DAY

호텔로 들어섰던 일단의 무리들이 프론트 앞을 지나자 이를 지켜보던 프론트 직원들 중 하나가 잽싸게 수화기를 집어 든다. 이때 사복들 중 하나가 다가와 직원이 들고 있던 수화기를 가로채 도로 놓아버린다. 직원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한다.

98. INT. 사우나로 향하는 복도-DAY

양복을 위시한 무리들이 코너를 돌아 사우나 입구쪽으로 향한다. 양복을 입은 사내는 아주 깐깐한 인상을 풍기고 사복들 모두가 굳은 표정들이다. 사우나 입구쪽에 이르자 양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깍은 덩치들 3명이 다가오는 이들을 발견하고는 놀라고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그래도 그들 중 하나가 복도를 막아서며

덩치1
뭡니까?

양복
(짧고 강한 어조로)
연행해!

뒤에 따라오던 사복들과 경관들이 일제히 품속에서 수갑과 권총을 꺼내 든다. 건달들의 손목에 철컥철컥 수갑이 채워진다.

99. INT. 호텔 사우나 탈의실-DAY

욕실 출구의 문이 열리며 콧수염이 탈의실로 나온다. 그러자 대기하고 있던 아까의 두 덩치가 준비하고 있던 커다란 수건으로 문신으로 뒤덮힌 콧수염의 몸을 닦기 시작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성스런 손놀림이다. 익숙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서 몸을 맡기고 있던 콧수염의 눈가에 주름이 생긴다. 카메라가 앵글

을 바꾸자 구둣발로 탈의실 안을 성큼성큼 들어오는 양복 무리들이 보인다. 양복과 콧수염의 시선이 마주치는가 싶더니 양복이 콧수염 앞에 선다. 그와 동시에 사복들이 몸을 닦던 덩치들의 손에 수갑을 채운다. 자신의 몸을 닦던 덩치들이 사복 형사들에게 제압당하는 꼴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콧수염의 눈이 양복 입은 사내의 눈을 쳐다본다. 양복은 약간 빙글거릴 뿐 표정엔 변화가 없다. 콧수염이 가볍게 쉼 호흡을 하더니

콧수염
옷은 입고 가야지.

100. EXT. 자갈치 부둣가-NIGHT

자갈치 부둣가는 많은 소형 선박들이 빽빽히 정박해 있고 이곳 저곳에서 방금 들어온 배들이 생선을 박스에 담아 내느라 어둠 속에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카메라가 건물 안쪽의 공판장으로 이동하면 한참 경매중인 상인들과 거간들의 모습이 보인다. 마이크를 잡고 약간의 코맹맹이 소리로 값을 매기면 우르르 모여 선 상인들은 손가락을 구부려 표시해 값을 흥정하고 있다. 그 뒤쪽으로 일단의 건장한 무리들(10명)이 손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간다. 그 중에 길다랗게 기른 앞 머리카락이 놀놀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대장격의 사내의 모습이 보인다. 동수다. 잔뜩 뭔가를 벼른 사람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CUT TO

한참 생선을 퍼서 박스에 담고 건물에서 연결된 얼음 조각들을 그 위에 덮어 한쪽으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데 갑자기 쌓아놓은 생선박스를 야구방망이가 후려 갈기자 얼음 조각과 함께 생선들이 박스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흩어져 버린다. 놀란 인부가 고개를 들자 동수 패거리들이 버티고 서 있다.

동수
오늘부터 삭스핀은 우리가 접수한다. 있는 데로 꺼내라.

이때, 배 위에서 세 명의 건달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건달1
뭐꼬? 이 씹새끼들!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동수쪽 패거리들 중 하나가 들고 있던 도끼를 던진다. 어깨1의 귓전을 스치고 뒤 쪽의 유리창을 박살 낸다. 이와 동시에 우르르 배위로 뛰어 올라 난투극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닥치는대로 부수고 때리는 가운데 동수와 2명의 건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101. INT. 냉동창고-NIGHT

냉동창고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 영감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팔뚝에 왕년의 가락을 표시하는 배 닻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다. 웬 검은 그림자가 자신 앞에 선다. 라면을 먹던 영감이 올려다 본다.

동수
삭스핀 있는데로 다 꺼내소.

영감이 한 번 힐끗 보고는

경비영감
  (계속 라면을 먹으며)
인수증 갖고 온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수의 야구방망이가 그대로 영감의 라면 그릇과 가슴팍을 동시에 쳐버린다. 영감이 나동그라지고 동수가 자신의 구둣발로 영감의 목을 짓누른다. 영감이 캑캑거린다. 한 녀석이 영감의 허리춤에서 키 뭉치를 빼낸다. 동수의 구둣발이 영감의 얼굴을 차버린다.

CUT TO

냉동창고의 문이 열리자 안으로부터 하얀 서리가 터지듯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동수 패거리가 안으로 들어간다.

102. INT. 장의사 앞 도로-DAY

차 전방 유리의 시점으로 제법 넓은 도로를 끼고 있는 사거리가 보이고 화면 앞쪽에 장의사 간판이 위치해 있다. 잠시 후, LS로 로얄 프린스 한대가 와서 장의사 앞에 멈춘다. 차에서 네 명이 동시에 내리는데 호리호리하고 키가 큰 동수(30대 초반)를 제외하곤 모두들 목이 없는 덩치들이다.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동생들을 향해 동수가 뭐라고 간단히 지시한 후 장의사 안으로 들어간다. 동수가 들어가자 나머지 3명이 다시 90도 인사를 한다. 한 참 후에야 몸을 세우더니 다시 차를 타고 떠난다.

도루코(O.S.)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집으로 올 줄 알았다...씨발새끼 좆도 불안할끼야....

화면의 앵글이 바뀌면 그 동안 차 안에 앉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카메라 앵글을 교묘히 잡아 운전석에 앉은 녀석과 나머지 뒤에 앉은 두 명만이 보인다. 운전석의 녀석은 20대 중반 쯤으로 보이고 뒷좌석에 앉은 녀석들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독살스러운 인상을 한 녀석들이다. 두 녀석이 잔뜩 긴장한 채 앞 조수석에 앉은 녀석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새벽 세시에 우리 쪽에서 초상이 났다고 전화를 때릴기다. 즈그
부모들이 나갈 때 샤타를 열어 놓을끼야. 그라믄 유리문 밖에
없으니까. 긁고 들어가라꼬...어느 방이라켔지?

도루코행동대1
부엌 맞은편 방입니다. 행님.

도루코
그래...맞다. 우리 큰행님 팔아묵은 씨발자석이다. 고마 자고 있는거
푹 몇번 담그고 오믄 된다. 알겠제?

도루코행동대1,2
예. 행님.

도루코
그 동안 연습은 많이 했을 끼고...연장은 손에 잘 맞나?

도루코행동대1,2

예, 잘 맞습니다. 행님.

도루코가 비로소 뒤를 쳐다보며 얼굴을 드러낸다.(이전까진 목소리만 들린다) 나이가 들어 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코밑의 상처는 여전하다.

도루코
작업은 이따가 새벽에 하고...(옆의 운전석을 향해) 준석이 한테는
뭐라켔노?

운전석
창고 영감님 병문안 간다고 했습니더.

도루코
(잠시 잠자코 있더니)
잘했다....가자.

도루코 일행을 태운 차가 출발한다.

103. INT. 장의사 집안-NIGHT

딸깍하고 유리문의 고리가 열리며 아까 도루코와 함께 있던 두 녀석이 들어온다. 손에는 날이 시퍼런 사시미 칼이 들려있다. 유리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 때문에 날이 더욱 시퍼렇게 보인다.

CUT TO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자고 있는 동수의 얼굴이 CU로 보여진다.

CUT TO

살금살금 마루를 지나 부엌의 앞에 있는 방까지 이른다. 동수가 자고 있는 방은 유리가 나무 틀에 끼어있는 미닫이 문으로 되어있다. 둘중 한 녀석이 조심스레 미닫이 문을 열기 시작한다. 문이 약간 삐이익 소리를 내며 열리려는 찰나.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 미닫이 문이 통채로 두 녀석에게로 쏟아진다. 두 녀석이 동시에 아악~하는 비명을 지르고 문과 함께 가슴 높이의 서랍장이 밀려나와 둘을 덮치고 만다. 두 녀석이 깔린 채 피를 흘리며 버둥거리는데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나온 동수가 그걸로 녀석들의 면상을 두 세 방씩 갈긴다. 퍽.퍽.하며 피가 튀긴다. 동수가 다듬이 방망이를 놓고 떨어진 사시미 칼을 집어 든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한 녀석을 내려다보는 동수의 표정은 싸늘하고 냉정하다.

동수
(나즈막이)
누가 시킷노?

행동대원 녀석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정신을 차리려고 애쓴다. 동수가 다시 묻는다.

누가 시킷노?

도루코행동대1
조...좆이다.

동수가 녀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여전히 무표정한 시선을 녀석의 발 쪽으로 옮긴다. 동수가 자리에 앉아 녀석의 발을 잡는다. 쓰러진 녀석의 몸이 움찔한다. 동수의 손에 쥐어진 사시미칼이 생선토막 자르듯 녀석의 아킬레스건을 내려찍는다. 퍽-퍽-하는 소리가 녀석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에 잠겨버린다.

104. INT. 준석행동대의 합숙소-DAY

일곱 개의 두꺼운 바둑판이 보기도 좋게 열을 맞추어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져 있다. 수초후, 쉭쉭쉭 하며 칼들이 바둑판에 날아든다. 그중에 나뭇결을 파고들어 꽂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칼자루가 바둑판에 튕겨나가는 것도 있다. 칼의 종류도 다양하다.

준석(O.S.)
다음.

이번에도 칼들이 날아들어 바둑판을 때린다. 그 중에 칼끝은 뾰족하고 칼등이 두껍지만 길이가 짧은 (생선 아가미 딸때 쓰는 칼) 것이 바둑판에서 튕겨나간다. 준석의 손이 그 칼을 집는다. 화면이 FS로 빠지자 50평 정도의 집안 마루에 20명 남짓한 건달들이 바둑판 반대쪽에 서 있다.

이거 누가 가지왔노?

건달들 중 턱이 두꺼운 녀석 하나가 앞으로 나오며

턱쭈가리
예. 행님. 접니다.

준석이 칼을 손바닥 위에 툭툭 치더니 대원들을 향해

준석
느그들이 어릴때 갖고 다니던 도루코 칼이나 이런 걸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다들 죽인다는 말에 얼굴이 긴장된다.

너무 클 필요도 없고 (칼 끝에 손가락으로 더해 가늠해 보이며)
날은 15센치 이상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단 날이 너무
얇아서는 안된다. 몸속의 뼈 때문에 부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시미 칼이나 스웨덴제 칼을 많이 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손에 맞아야 한다. 지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손에 안 맞으면
쓸모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대원들
예.

준석
(살벌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여기서 칼을 맞아본 놈도 있겠지만 일단 몸속에 칼이 들어 왔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백프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있다.

INSERT-누군가의 손에 쥔 스웨덴제 칼이 다른 누군가의 옆구리를 푹-찌른다. 눈이 사파리가 된 채 주저앉는 사람은 상택에게 카드를 전해 줬던 짱가다.

그런데 한번씩 뱃대지에 칼이 꼽힌 채로 계속 지랄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 배에 칼이 들어 온 거를 모르고 있는 거다.

INSERT-아수라장이 된 볼링장에서 15명의 건달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칼부림을 하며 싸우고 있다. 트렁크에 앉아 뒷통수를 얻어맞던 건달이 배에 칼이 꽂힌 채 의자를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찌르고 나면 90도로 날을 돌려준다.

INSERT-도루코의 사팔뜨기가 된 눈이 자신의 복부에 찔린 칼을 내려다본다. 손잡이를 쥔 손이 90도 돌아간다.

그리고 아래에서 부터 위로 쳐 올린다. 자기가 칼을 맞았다는 것을
최대한 느끼게 해 줘야 된다.

INSERT-도루코의 배에 꽂힌 칼이 갈비뼈를 가르는 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배를 가르고 올라온다. 도루코의 입에서 악~하는 비명이 나온다. 칼을 잡은 손을 따라 카메라가 올라가자 눈동자가 풀린 동수다.

동수
(싸늘하게)
준석이는 어데있노?

다시 화면에 설명을 계속하는 준석의 얼굴이 보인다.

준석
그렇지만 누구를 히트할때 제일 좋은 것은 2인1조다. 비명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믄 증인만 많아지니까 되도록 소리 없이 끝내는 기
최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앞에서 공격하믄 나머지 한 사람은 뒤에서
폐를 관통 시킨다.

INSERT-고함을 지르던 도루코가 갑자기 헉-하며 호흡을 멈춘다. 카메라가 tilt up하면 뒤에서 찌르 는 녀석의 눈동자 풀린 얼굴이 보인다.

(N.A.)
폐가 관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 폐에 출혈이 되면 99%가
학실히 절명한다. 그래서 칼잡이들은 항상 복부나 심장보다는
폐를 노린다.

INSERT-슬로우 모션으로 도루코의 얼굴이 기름칠이 잘 되어 있는 마루 바닥에 퍽-하며 떨어진다.
벌어진 입에서 울컥거리며 피가 나오기 시작하고...

SLOW FADE OUT

105. INT. 화장터-NIGHT

화장터의 화장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에 "도신철"이라고 이름이 쓰여진 판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다. 관 하나가 막 둥글고 시뻘건 화로 속으로 들어간다. 도루코의 사진을 든 동생으로 보이는 20대 중반

의 사내가 상복을 입고 묵묵한 표정으로 서 있고 두루코의 할머니 인 듯한 초췌한 모습의 노인네가 멍한 눈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눈물을 흘릴 기력조차 없어 보인다. 카메라가 불 구덩이 속을 비추면 시뻘건 화염에 금방 관이 녹아 내리는 듯 타버리고 천으로 싸놓은 시신 또한 벌겋게 달아오른다.

106. EXT. 화장터 주차장-DAY

로얄싸롱 승용차가 멈추면 차에서 준석과 기사 그리고 다른 건달 하나가 차에서 내려 화장소 입구로 다가간다. 준석의 표정이 매우 무겁다.

107. INT. 화장소 입구 TO 가족대기실-DAY

준석과 두 건달이 어두운 표정으로 입구를 들어서는 모습이 FS로 잡힌다.

INSERT-도루코의 타 들어간 몸에서 아직 불기운을 띠고 있는 뼈들이 컨베이어 안으로 들어간다.

계단을 내려오는 준석의 모습이 MS로 잡힌다.

INSERT-커다란 자동 쇠망치들에 의해 뼈가 부숴지기 시작한다.

쇠망치가 뼈를 두들기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며 계단을 내려온 준석이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간다.

이후, 복도를 걷는 준석의 얼굴과 쇠망치에 의해 뼈가 부스러지는 모습이 짧은 shot들에 의해 교차편집으로 엮인다. 쇠도리질 소리가 마치 준석의 심장에서 나는 고동소리처럼 갈수록 빠르고 크게 화면을 덮는다. 그러다가 쇠도리질 소리가 뚝 끊기면 준석이 가족 대기실 안에 들어선다.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곧 화장터로 옮겨야 할 것 같은 몇몇의 녀석들만이 드문드문 앉아있다. 준석을 본 녀석들이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인다. 이를 지켜보는 준석의 표정이 굳어있다.

108. INT. 교도소 면회실-DAY

면회실의 교도관이 면회기록지에다 볼펜으로 날짜와 92년 8월 11일 14시 55분이라고 기록을 한 뒤 면담 내용을 받아쓸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화면이 넓어지자 콧수염이 죄수복을 입은 채 서있다.

콧수염
(담담하게)
신철이 소식은 들었다.

준석
죄송합니다.

콧수염
니가 죄송할 일은 아이다.

그리곤 둘이서 잠시 우두커니 서 있을 뿐 아무런 말이 없다가

어떻게 할 생각이고?

준석
자갈치껀은 곧 원상복귀 할겁니다.

콧수염
그말이 아이다.

준석이 콧수염을 쳐다본다. 언제 말을 했었냐는 듯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준석
그 친구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뤘습니다.

콧수염
그래서?

준석이 다시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잠자코 준석을 바라보던 콧수염이

너희 아버지가 내게 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평생토록 머릿속에
심고 사는 말이 있다.

준석이 콧수염을 쳐다본다.

니가 상대보다 힘이 두 배 강하면 그 사람은 니한테 욕을 하지만
열 배가 강하면 존경을 한다. 그런데 백배가 강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니한테 종이 된다.

준석이 잠자코 콧수염을 쳐다본다.

그 친구가 니한테 종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도 될 수 있다..
그말이다.

기록을 하던 교도관이 콧수염과 준석을 번갈아 쳐다본다.

109. INT. 바닷가 방파제-NIGHT

고등학교 시절 상택과 함께 앉아 있던 방파제에 준석이 혼자 앉아 있다. 일렁이며 왔다가 포말로 부숴지
는 파도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 지난번 처럼 돌맹이를 쥐고 바닥에 긁적인다.

준석(V.O.)
상택아. 니가 이 편지를 받아 보게 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니 생각이 나서 니랑 같이
우리엄마 한테 카드 쓴 다음으로 편지를 써본다. 솔직히 나는
그때 니가 가출하자고 내 찾아 왔을 때 니를 도로 집에 보내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멋있다고 생각 했는지 모른다. 니 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니 인생에서 꽤 도움되는 일 한가지는
했구나 하는 생각에 어쩔 때는 니가 사는 인생의 십프로 정도는
내 몫도 있다하는 생각까지도 했다. 미안하다.

110. INT. 허름한 식당-NIGHT

중호와 상택이 소주 한병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중호는 혼자 빈잔에 잔을 채워 따라 마시고 상택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 오른 채 낡은 편지 한장을 읽고 있다.

준석(V.O.)
오늘 낮에 동수랑 속상한 일이 있어서 집에 하루종일 있다가
고등학교 때 얌새이가 사라고 해서 산 국어 사전이 보이길래
뒤적거려 보니까 친구라는 말이 한자더라. 나는 친구라는 말이
우리 말인 줄 알았는데 친할 친자에 옛 구자를 써서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고 써놨더라.

111. EXT. 부산 영주동 러시아 타운-NIGHT

러시아 글씨로 된 간판이 골목 전체를 뒤덮고 있는 길에 로얄 싸롱 승용차가 선다. 뒷좌석에서 준석이 내려 근처에 있는 조그만 빠로 들어간다.

억쑤로 멋있는 말 아이가? 니 하고도 오래 전부터 알았고 그라고
항상 아니...솔직이 한번씩 생각은 하고 살았으니까 친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더라.

112. INT. 러시아식 빠안-NIGHT

구석의 어두 컴컴한 테이블에 준석과 뱃사람 행색의 한 러시아인이 마주 앉아있다. 러시아인이 신문지에 쌓인 뭔가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데 묵직한 느낌이다. 준석이 100달러 짜리 5개를 테이블 위에 놓고 손바닥을 펴자 그 위에 총알로 보이는 것들을 쥐어준다. 준석이 손바닥을 오므려 주머니 속에 넣는다.

상택아! 나는 한번씩 내가 니 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니 한테 미안해서 그런생각 안할라고 해도 한번씩
그런 생각이 든다. 느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느그 엄마가 내 엄마고
느그 동생들이 내 동생이고 느그 집이 우리집이고 그렇게...미안하다.

113. EXT. 쥬피터 단란주점 앞-DAY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서면 거리의 단란주점 앞에 택시가 선다.

참. 진숙이가 창원에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며칠 있다가 아버지
제사 끝나고 한번 찾아 가 볼 생각이다. 진숙이 보믄 니 안부도 전하께.

차에서 내리는 준석이 입구쪽에 서 있는 녀석과 눈길을 마주치고 안으로 들어간다. 준석이 계단을 내려가자 입구에 서있던 건달이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를 입에다 대고

동수측건달1
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혼잡니다.

114. INT. 쥬피터 단란주점-DAY

준석이 단란주점의 지하 계단으로 준석이 내려온다. 대기하고 있던 동수측 건달들이 준석의 몸을 뒤져서 숨긴 무기가 없는지 확인한다. 무기가 없슴이 확인되자 준석을 데리고 룸으로 들어간다.

그라고 부산에 계시는 느그 아버님 한테는 인사를 한번 가고 싶어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망설이기만 하다가 결국 한번도 못갔다.
이해해도. 이 편지는 중호한테 맡기 놓으께. 서로 보게 되는 날까지
건강해라. 준석이가...

CUT TO

룸의 문이 열리고 준석이 들어서자 동수가 상석에 앉아있다. 둘의 눈이 잠깐 마주치더니 준석이 손을 내 밀어 악수를 청한다.

준석
동수 오랜만이네.

동수
(악수를 받으며)
잘 있었나?

준석이 자리에 앉는다.

준석
아버지는 잘 계시나?

동수
(별걸 다 묻는다는 투로)
노친네들이 다 그렇지 뭐...잘있다.

그리고 둘이서 말이 없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쳐다본다. 그러나 눈에 힘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냥 평소때 자주 만나는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눈길이다.

도루코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일이 너무 바빠가꼬...

동수의 말에 잠자코 있던 준석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준석
많이 컷네....동수.

동수가 준석의 말에 픽-하는 웃음을 짓고는

동수
(삐리한 어투로)
원래 키는 내가 좀 더 컸다아이가? 니 시다바리 할때부터...

다시한번 두사람의 눈길이 말없이 교차한다.

준석
간단하게 말 하께.

동수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준석
(답답함을 표현하듯 눈을 응시하며)
동수야!

동수가 대답대신 정색을 하고 준석을 쳐다본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니가 내보고 인자 어른이라켔던 거 기억하나?

동수
(천천히 목소리를 깔아)
기억...안한다.

준석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도 나는 니를 한번도 원망 안했다. 니가 내라도
원망 안했을 거야.우리는 시키는데로 하고 사는 놈들 아이가?

동수
(민감하게 반응하며)
와? 누가 니한테 내 직이라꼬 시키드나?

준석이 한숨을 쉰다. 동수가 애써 스스로 감정의 동요를 막으려 한다.

준석
(매우 진지한 표정이 되어)
오늘이 우리 아부지 제사다. 친구로써 마지막 부탁이 있어서 왔다.

동수가 상체를 조금 앞으로 숙이며

동수
부탁해라.

준석
하와이로 가라. 그게 가서 좀 있스믄 안되겠나? 조금만 세월이
지나믄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을끼다. 준비는 내가 해 주께.

그 말을 들은 동수가 준석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꾸가 없다. 준석과 동수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만난다. 동수가 고민이 되는지 상체를 완전히 숙이고 눈을 지그시 한번 감았다가 뜨고선...

동수
니가 가라....하와이...

준석이 고개를 숙인다. 그리곤 모든 것을 포기 한 듯 잠시 있다가 뭔가를 크게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선다.

준석
그래 내가 가께. 몇 년 있다가 보자.

동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준석을 올려다 본다. 준석이 편하게 웃어 주고 밖으로 나간다.

CUT TO

준석이 문을 열고 나가는데 입구에 다섯 명 정도의 동수측 건달들이 손에 칼을 들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준석이 더 이상 나가질 못하고 녀석들을 쳐다보는데 안에 남아 있는 동수는 눈도 꿈쩍이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더니...이윽고 안쪽에서 동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동수(O.S.)
오늘 아부지 제사란다.

동수측 건달들이 슬며시 물러서고 준석이 밖으로 나간다.

115. EXT. 쥬피터 단란주점 앞-DAY

준석이 단란주점을 나와 담배를 꺼낸다. 그리곤 불을 붙인다. 준석이 피던 담배를 금방 바닥에 부벼끄는 모습이 멀리서(누군가의 시선으로) 보인다. 준석이 앞에 서는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진다.

116. INT. 단란주점 룸-DAY

동수가 깍지 낀 두 손 위에 턱을 괴고 멍하게 앉아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동수
차 어데 있노.

117. EXT. 쥬피터 단란주점 앞-DAY

서면의 유흥가 골목. 쥬피터 단란주점 앞이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고 있다. 단란주점에서 동수와 두 명의 건달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번쩍하는 번개와 함께 수 초 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동수와 한 녀석이 입구에 서 있고 나머지 녀석이 차의 키를 건네 받고 길 건너 쪽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대각선의 반대편 거리에서 두 녀석이 비를 맞으며 동수 쪽으로 뛰어 오기 시작한다. 동수와 함께 있는 건달이 반대편을 바라보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우산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만다.

INSERT-한폭의 병풍이 쫙-펴진다.

영화의 주제 음악이 무겁게 편곡되어 화면에 흐르며 느린 동작(초고속 촬영)으로-이후 계속- 마침내 얼굴에 살기를 띤 채 바지 춤에서 신문지에 싸인 칼을 빼어 드는 준석의 행동대가 빗속을 뚫고 동수에게로 다가 온다. 동수가 느낌이 이상한지 눈길을 돌려 보자 힐끗 우산들 사이로 누군가 뛰어오고 있는 것만 보인다.

INSERT-역시 느린 동작으로 까만 제사용 상 위에 하얀 색의 한지가 너풀거리며 깔린다.

동수의 얼굴이 굳는 것과 동시에 불과 수 미터 전방으로 다가온 준석 행동대가 지나가는 사람을 밀치고 달려든다. 날이 퍼런 사시미 칼이 동수의 복부를 겨냥하고 날아든다. 동수가,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옆에서 있던 녀석을 앞으로 밀어버린다.

INSERT-하얀 쌀밥 위에 은 숟가락이 푹-꼽힌다.

동수대신 칼을 맞은 녀석이 앞으로 꼬꾸라지자 동수가 옆으로 몸을 튼다. 순간 다른 녀석의 손에 쥐어진 칼이 동수의 옆구리에 푹 꽂힌다. 동수가 잠시 멈칫 하더니 이내 찌른 녀석의 얼굴을 갈긴다. 녀석이 칼을 쥔 채 빗물이 흥건한 바닥에 쓰러지고 아까 다른 녀석의 배에 칼을 꽂았던 녀석이 막 도망가는 동수의 허벅지에 다시 칼을 꽂는다.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한걸음 더 내딛는 동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내닫는데 달리고 있는 택시의 전방 유리 시점으로 동수가 튀어나오는 것이 보인다. 택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자 동수의 몸뚱이가 본네트를 타고 택시의 앞 유리에 부딪힌 후 다시 길바닥으로 떨어진다. 택시의 앞 유리에 묻은 피가 빗물에 의해 씻겨진다.

INSERT-세 개의 향 끝에 불이 붙여진다. 후-불어서 화염을 끄자 잠시 하늘거리던 향이 수직으로 피 어오른다.

길바닥에 쓰러졌던 동수가 다시 일어나 뒤를 보자 준석의 행동대들이 비를 맞으며 핏물이 떨어지는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다. 동수가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 다시 뛰기 시작한다. 동수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터진 옆구리에서 벌컥벌컥 피가 새어 나온다.

INSERT-하얀 도자기 술잔에 맑은 소주가 따라진다. 잔을 든 손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향을 세 바퀴 돈다.

동수가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뚫고 나온다. 지나던 여자의 하얀 원피스에 시뻘건 피가 묻는다. 여자가 자신의 옷에 묻은 피를 보는 순간 여자 눈 앞으로 칼이 휙-스친다. 날아간 칼이 동수의 등에 꽂힌다. 동수가 전봇대 하나를 잡고 쓰러진다.

INSERT-다시 술잔 하나가 향을 돌고는 나란히 놓여있는 밥그릇 옆에 놓인다. 두 잔의 술이 놓여 있 는데 그 위로 준석 부모님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다.

준석의 행동대 둘이 쓰러지는 동수에게 달려온다. 한 녀석이 동수의 머리를 전봇대에 쳐 박으면 다른 녀석이 들고 있던 칼로 쓰러지는 동수의 복부를 찌른다. 비를 맞아 온통 머리칼이 젖은 녀석은 눈동자가 희미하게 풀려있다. 나머지 녀석이 등에 꽂힌 칼을 뽑는다.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린다.

INSERT-검은 양복을 입은 준석이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한다.

준석의 행동대원 둘이서 버둥거리는 동수의 몸을 계속해서 찔러대고 있다. 동수의 입에서 견디기 힘든 비명이 터져 나온다.

INSERT-절을 하고 고개를 드는 준석의 얼굴이 CU로 잡힌다. 준석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제삿 상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빈잔에 소주를 한잔 더 따른다.

마침내 비명을 질러대던 동수가 헉-하고 호흡을 멈춘다. 동수의 머리가 서서히 바닥으로 떨어지면 등 깊숙이 에서 칼을 뽑아내는 준석 행동대원의 모습이 보인다.

INSERT-술잔 하나가 두 잔의 중간에 탁. 놓인다. 그리고 준석이 다시 절을 한다.

준석의 행동대원 둘이서 서로 매우 가쁜 숨을 몰아 쉬며 헉헉대며 서 있다. 잠시 멍한 듯 비를 맞으며 서로 마주보더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몸을 돌려 뛰기 시작한다.

INSERT-준석이 두 번째 절을 하고 고개를 든다. *이후 아래의 장면들이 오버랩의 형태로 이어진다.
INSERT-중호와 함께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고 있는 동수를 불러내는 준석의 모습.
동수가 눈을 부릅뜨고 죽어가는 얼굴.
INSERT-어린 넷이서 나란히 입에 고추장을 묻혀가며 떡복이를 먹고 있는 모습.
INSERT-준석이 마지막 반절을 하고 고개를 드는 모습.
INSERT-넷이서 나란히 앉아 포르노 비디오테입을 보고 있는 모습.
동수의 눈이 쏟아지는 빗물 속에서 파르르 떨며 감기는 모습.
INSERT-제사 양복을 그대로 입고 준석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
INSERT-장난감 칼로 준석의 옆구리를 찌르고 웃는 동수의 모습.
INSERT-눈칼자욱이 호텔의 입구에서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
INSERT-넷이서 나란히 남포동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
INSERT-준석의 집 화장실에서 준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내려놓고 피식-웃는 동수의 모습.
INSERT-막 떠나려는 눈칼자욱의 차로 뛰어와 창문 밖에서 눈칼자욱의 머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준석.
INSERT-어린시절 콧수염과 함께 차를 타고가다 준석에게 타라고 하던 눈칼자욱의 웃는 모습.
INSERT-세발의 총이 이마와 광대뼈에 박힌 채 쓰러진 눈 칼자욱의 모습.
INSERT-준석이 충혈된 눈으로 쳐다보자 상복을 입은 준석의 어깨를 툭 치며
"니는 어른 아이가"라 고 말하는 동수.
INSERT-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사라지는 준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석의 놀랐다가 웃는 얼굴에서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상택의 얼굴로 이동하면 다음 씬의 성인이 된 상택의 얼굴과 오버랩 된다.

118. EXT. 여관방-DAY

이전씬에서 연결되어 모로 누워있는 상택의 얼굴로 이동한다.

중호
그 다음에 한 이년 정도는 숨어서 지냈다. 그 사이에 진숙이 만나서
아도 놓고.

화면이 넓어지자 온돌인 여관방에 상택과 중호가 나란히 누워있다.

그런데...결국에는 지가 못견디드라...허구헛날 도망다니기 힘드니까
결국에 많이 약해짓지....결국 사고를 치고 말더라...

중호가 몸을 돌려 머리맡에 있던 담배를 집어 들어 지포 라이터의 뚜껑을 탁 연다.

119. INT. 룸싸롱-NIGHT

룸싸롱의 문이 와락 열리며 계단에서 일단의 경찰 무리들이 들이 닥친다. 카메라는 그들의 시선 shot으로 스테디캠을 사용한다. 룸싸롱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목에서 피를 흘리며 얼굴이 개판이 된 웨이터가

웨이터
(들고 있던 수화기를 내려 놓으며)
신고 한지 얼마가 됐는데 지금 와요?

경찰(O.S.)
어느 방이야?

카메라가 웨이터가 가는 데로 따라간다. 복도에 다른 웨이터 둘이 한 녀석은 물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앉아있고 다른 녀석은 다리에 찔린 깨진 맥주병을 뽑아보려고 애쓰고 있다. 바닥에는 병조각이 흩어져있다.

웨이터
이거 완전히 미친놈 이라니까요.

마침내 경찰이 웨이터가 가리키는 방의 문을 열고 들이닥친다. 자신도 얼굴이 난장판인 준석이 한 손에 양주병을 들고 병나발을 불고 있다. 룸은 이미 개판이고 화장이 모두 일그러진 아가씨는 연신 징징 울면서 준석의 어깨부터 팔목 근처까지 갈라 진 채 피가 쏟아져 나오는 상처를 여러 개의 물수건으로 동여 메고 있다. 준석이 경찰을 발견한다. 팔에 물수건을 감던 아가씨가 이젠 살았다 싶은지 으아앙 울며 경찰 쪽으로 뛰어간다. 경찰들이 너무 황당한지 무슨 말을 못하는데

준석
(완전히 혀가 꼬부라져서)
뭐하노 짭새들아! 빨리 잡아가라!

120. EXT. 경찰서 전경-DAY

부산의 한 경찰서의 전경이 잡히면 양복을 차려 입은 중호 걸어 들어가고 있다.

121. INT.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DAY

중호가 약간은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는데 잠시후 수갑을 찬 준석이 경찰의 인도를 받아 면회 창구로 온다. 중호는 머리 위의 벽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를 힐끗 본다. 몸을 창구 쪽으로 바싹 붙인다.

중호
(보통의 목소리로) 몸은 좀 어떻노?

준석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이 없다.

(갑자기 다급히 속삭이는 말투로 바뀌어) 기왕 이렇게 된 거 재판은
잘해야 된다.

준석이 중호의 다급한 표정을 본다.

(보통 목소리로) 재수씨는 나중에 한번 올끼다. (다시 속삭이듯)
재판에서는 무조건 니는 모르는 거고 그런거 시킨적 없는거다.

준석은 멍하게 듣고만 있다.

(보통 목소리로) 뭐 연락해 줄때나 필요한 거는 없나? (다시 속삭이듯)
정신 차리야 된다. 약은 칠때로 다 치놨다.

준석의 눈이 면회창구의 아래 틈새로 삐집고 들어오는 동그랗게 말은 종이를 쳐다본다. 중호가 집어 넣으라는 눈짓을 한다. 준석이 종이를 쳐다 볼 뿐 집어 넣지를 않는다.

재판 때 예상 답변서다. 꼭 그대로 말해야 된다. (보통 목소리로)
내일 다시 변호사 만나 볼거다. 너무 걱정하지마라...

중호가 더욱 정색을 하고 목소리를 작지만 힘을 주어

준석아, 지금 부터가 전쟁이다. 머리 잘 써야 된다. 까닥 잘못하믄
건달이고 좆이고 없다....이걸로 끝이다. 빨리 집어 넣어라!

준석
이런 거 필요 없고 앞으로...

중호
(준석의 말을 확 자르듯)
씨발놈아!

준석의 표정이 굳는다. 중호가 매우 화난 얼굴이 되어 있다.

동수도 내 친구다. 니라도 살리고 싶어서 이 지랄 하는 거 모르나?

중호의 눈이 매섭게 준석을 쳐다본다. 준석이 마지못한 듯 종이를 내려다 본다.

FADE OUT
FADE IN

122. INT. 유치장 면회실-DAY

다시 화면이 밝아지면 준석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반대편에는 동수부친의 모습이 보인다. 비교적 선해 보이는 60대로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 입었다.

동수부친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어짜피 니도 내 아들 같은 놈인데...내가 짜다리 무슨 말을 하겠노.
단지 내가 온거는...중호 그 자석이 참 중간에서 애 많이 쓰더라...
하모...다 친구라는 기 어려울 때 돕고 그래야지...하모...

준석이 조심스럽게 고갤들어 본다.

느그 부모님 두분 다 내가 염을 했다...나는 경찰들 말처럼 니가
동수를 그랬으리라고는 생각 안한다. 아이다, 설사 그랬어도 뭐...
나는 그래 안믿고 싶다.

동수부친이 약간은 횡설수설하며 차츰 목이 메어온다.

단지 내가 오늘 온거는...동수 그자석 내 이렇게 될줄 알았다.
평생토록 내 마음을 한번도 편하게 해 준적이 없는 놈이다. 그
개겉은 자석...(눈에 이슬이 맺히며) 독자라는 새끼가...나쁜놈...

동수부친이 이윽고 고갤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준석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만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새끼를 내가 염을 했다...내가 염을 했는데...
신문에는 열세군데가 찔렸다고 났거던...그런데...그런데...

흐느낌이 더욱 격렬해 진다.

내가 보니까...서른 군데가 넘는기라...칼로 찔린 데가 서른 군데가
넘드라꼬...

동수부친이 고갤 숙인 채 극도로 흐느끼고 준석은 눈을 위로 떠서는 묵묵히 이를 쳐다본다.

FADE OUT
FADE IN

123. INT. 유치장 면회실-DAY

동수부친의 흐느낌이 어느새 아이의 울음소리로 바뀐다. 콧수염이 제법 자란 준석이 아이를 쳐다본다.
아이를 안고있는 진숙은 예전에 비해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준석에게는 애써 미소
를 지어 보인다.

진숙
정진아~ 아빠한테 웃어야지...(준석과 아기를 번갈아보며)
정진아~ 정진아...

그래도 미소를 띠며 아들을 보고있던 준석이

준석
인자 아는 이런데 데리고 오지 마라.

진숙이 민망한지 고개를 숙이며

진숙
그게 아니라...

진숙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본다.

오늘 정진이 두돌 이거던요...(진숙이 울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빠한테...두살 됐다고...인사하러 온거예요...

준석의 충혈된 눈이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들어 천정을 본다.

124. INT. 유치장 안-NIGHT

유치장의 잠자리에 든 준석이 베개 밑에서 지난번에 중호에게서 받은 종이 쪽지를 꺼낸다. 종이에는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해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놓은 예상답변 내용들이 적혀있다.

재판장(V.O.)
사건번호 94다25168. 폭력단체조직 금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살인교사 그리고 살인혐의로 본 법정에서 심의합니다.

좀 읽어 내려가는 것 같더니 이내 시선이 딴 곳으로 가고 만다. 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곤 벽에 등을 기대어 앉는다. 한동안 멍하게 있더니 무릎사이로 고개를 박는다.

피고 이.준.석. 일어나세요. 주민등록번호. 본적. 그리고 주소를
말하세요.

125. INT. 법정-DAY

준석은 수의를 입은 채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기른 콧수염 때문에 그의 보스인 이형두와 비슷한 인상을 풍긴다.

준석
(담담하게)
640227-1105914. 부산시 남구 우암동 189번지. 주소는 영도구
청학3동 대림빌라 4동 1109홉니다.

준석이 말하는 동안 방청석의 뒤에 앉은 건달들의 긴장된 모습과 준석처의 걱정스러운 모습이 잡힌다.

재판장
검사측 질문 하세요.

검사가 일어선다. 별로 인상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준석을 한번 힐끗 보고는

검사
피고는 92년 살인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상현과 송기호를 알고
알고 있습니까?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 진다. 준석의 굳은 입술이 잠시 닫혀있는데 중호가 손에 땀을 쥔다.

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했던 검사도 약간 당황 하는데 이보다 더욱 놀란 변호사가 뒤를 돌아 중호를 쳐다본다.

검사
그러면...지난 92년 10월에 서면의 쥬피터 단란주점 앞에서
살해된 한동수를 알고 있읍니까?

준석
예. 친굽니다.

방청석의 건달들이 웅성웅성 거린다.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동수의 부모는 서로 손을 맞잡는다.

검사
(좀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며)
에...그러면 피고가 당시 박상현과 송기호에게 한동수를 살해 할
것을 지시 한적이 있습니까?

중호가 "제발 이것만은..."이라는 심정으로 준석의 뒤통수를 쳐다본다. 검사도 "설마 이것 까지야.."하는 눈길로 준석의 옆모습을 쳐다본다.

준석
(가볍게 쉼호흡을 하고는)
예...제가 지시 했습니다.

순간 방청석이 왁자지껄 소란스러워지고 동수의 부친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변호사는 얼굴이 붉어진다. 진숙은 눈물을 터트리고 정석의 표정은 허탈하기 이를 데 없다. 재판관이 망치를 두들기며 장내의 소란을 잠재우는 동안 준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다.

FADE OUT
FADE IN

126. INT. 소나타 승용차 안-DAY

상택이 운전석에 중호가 조수석에 앉아있다.

중호
글마가 재판 때...와 그랬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 봤거던...

상택
...와?

중호
처음에는 지가 직인 동수한테 사죄를 할라고 그라나 생각했는데...
그기 아인거 같더라.

상택이 중호를 쳐다본다.

그 자석...쪽팔리니까 그랬는기라...

상택
그기 무슨 말이고?

중호
지가 모른다카믄 칼질한 두 놈이 다 뒤집어 쓸거는 뻔하지...그래서
그랬는기라...쪽팔리서...그 새끼는 `건달'은 절대로 쪽팔리믄 안된다고

생각하거던...

상택이 후-하고 한숨을 쉬며 앞을 본다. 교도소 전경이 눈에 들어온다.

127. INT. 제소자 면회실-DAY

대기의자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상택의 얼굴로 돌아온다. 이때, 대기실 스피커에서 번호를 부른다. 중호가 상택을 툭툭 친다.

중호
상택아. 우리차례다.

CUT TO

상택이 철장과 두꺼운 유리로 가로 막혀진 면회 창구 앞에 앉아 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상택이 쳐다본다. 이때, 카메라는 상택의 맞은 편(제소자측)에 위치하고 있어 상택의 표정만을 잡고 있다. 뒷모습의 죄수복을 입은 준석이 자리에 앉는 동안 상택의 시선은 담담하게 준석의 얼굴을 따라간다. 준석이 먼저 벽에 붙은 수화기를 든다. 상택도 알아차린 듯 수화기를 든다. 카메라가 준석의 얼굴을 잡는다. 둘이서 웃기만 하고 한참 말이 없더니

준석
잘 있었나?

상택
응. 니는?

준석
(빙긋이 웃으며)
내는 잘 있다...요즘 어째 지내노?

상택
(자신도 모르게 울컥한다)
....자..잘지낸다.

준석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제하며)
상택아! 상택아 그라지 마라. 미안하다. 친구로써 이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가꼬.

상택
아이다. 아이다. 그래 말하지 마라.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준석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듯)
상택아. 우리 10분 밖에 없다. 빨리 이야기 하자.

상택
(자신도 말을 빨리하기 시작한다)

그래. 그래. 그라자. 니 건강하제?

준석
하모. 봐라 건강하다 아이가. 아부지는 아부지는 요새 우찌 지내시노?
인자 연세가 제법 되싯제?

상택
그래. 그래. 아부지가 니 보러 온다고 돈도 주더라. 참 그라고
규택이는 검사됐다.

둘의 대화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음악이 깔리기 시작한다.

준석
야~ 그 자석 어릴때 부터 똑똑하더니 갤국 검사됐네. 내 그럴줄
알았다. 그라고 신애는? 느그 여동생은 시집...

차츰 커진 음악 소리와 상택의 나레이션이 두 사람의 대화를 서서히 덮는다.
상택(N.A.)
10분은 마치 10초처럼 지나갔다.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시간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흘러갔다.

소리는 다시 면회실로 돌아온다. 중호는 준석이 부르는 데로 받아쓰고 있다.

준석
응..3309번. 그래 그게는 삼만원.

중호
그라믄 578번은? 이게는 우체국에 가가꼬 5만원을 부치란 말이제?

준석
그래. 그래. 미안하다. 그사람들 부모형제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탁좀 하자.

상택
그래. 걱정마라. 바로 부치께. 또? 또 없나? 니는? 니는 뭐 필요하노?

준석
내?

상택
응. 니.

둘이서 갑자기 말이 뚝 끊긴다. 둘 다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는데 기록을 하고 있던 교도관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다급한 듯)
니는? 빨리 말해라.

준석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대신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만다. 상택의 다급하게 묻는 모습을 웃으며 쳐다볼 뿐이다.

상택
뭐? 뭐 없나? 빨리 필요한 거 말해라.

교도관
10분 지났습니다.

준석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그거...니가 가지고 온 까만...

수화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상택이 수화기를 떼서 소리를 확인하는데 먹통이다.
상택
뭐라고? (답답한 듯 수화기를 놓고 유리벽을 향해 큰 소리로)
뭐라고? 준석아. 뭐라했노?

준석이 수화기를 놓는다. 교도관이 준석을 앞장 세우고 면회실을 빠져 나가려 한다.

(다시 울컥하며 고함을 친다)
임마. 또 오께. 다음달에 또 오께. 건강해라 또 오께...

준석이 문쪽으로 몸을 돌린다. 상택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만다. 준석이 갑자기 몸을 돌려 다시 상택 앞으로 온다. 유리벽에 얼굴을 가까이 댄다. 상택도 몸을 앞으로 숙인다. 준석이 씨익 웃는다. 상택도 애써 웃는다. 준석이 손바닥을 펴서 유리벽을 쾅 때린다. 상택도 손바닥을 펴서 유리벽을 쿵 때린다. 둘이서 다시 한번 건강한 미소를 교환한다. 그리고는 준석이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문을 넘어 사라진다.

(고함을 치며)
다음달에 오께! 준석아. 건강해라..

FADE OUT
FADE IN

128. INT. 상택의 집-DAY

상택과 상택의 처가 배편으로 부쳐온 이삿짐 상자들을 풀어 방을 정리하고 있다. 옆으로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4살 쯤으로 보이는 꼬마의 모습이 보인다. 상택이 상자 하나를 뜯어 물건을 정리하는데 조그만 미니카들이 우르르 쏟아진다. 그 중에 노란색의 택시 미니카가 보인다. 상택이 씁쓸한 미소를 짓고는 그 노란색 택시 미니카를 집어 든다.

129. INT. 교도소 감방안-NIGHT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감방에 누운 준석이 유리도 없는 창으로 흘러 든 달빛에 눈이 반짝인다. 골똘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도 깜박이지 않는다.

130. INT. 유치원-DAY

상택이 다른 아빠들 사이에 끼어 선생님의 피아노에 맞추어 쫑알거리며 노래를 하는 유아원생들의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 상택의 딸이 노래를 부르다 상택과 눈을 맞추고는 배시시 웃는다. 상택도 웃어준다. 카메라는 상택의 뒤쪽 유아원 벽에 걸린 예쁜 도화지에 써놓은`친구'라는 제목의 동시를 화면 가득 잡아준다.

"친구"

네가 웃을 때
난 기뻐
너가 슬플 때 나도 눈물이 나와
친구야 너도 그래?

131. INT. 교도소 목공 작업실-DAY

준석이 조그만 바닥에 떨어진 나무토막을 하나 집어 든다.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얼굴에 미소가 인다.

132. INT. 상택의 방-DAY

자신의 방에서 책을 보고 있던 상택이 문득 달력을 보고는 23이라는 숫자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준석 면회`라고 써넣는다.

133. INT. 교도소 목공 작업실-DAY

준석이 조그만 끌로 나무토막을 파내기 시작한다. 투박하지만 사람의 형태를 하고있다. 준석이 사포로 한쪽을 밀더니 훅-하고 분다. 나무먼지가 날라간다. 준석이 그 조각을 햇볕이 잘 드는 나무 선반 위에 놓아둔다. 이미 두개의 뚱뚱하고 길쭉한 나무 조각 두개가 놓여있다.

134. INT. 교도소 복도-DAY

어두운 교도소의 복도를 세 사람의 교도관과 스님 한 분이 걸어온다. 중간쯤에 위치한 방에 멈춘다.

135. INT. 감방안-DAY

모두들 어?!하고 놀라고 준석이 고개를 든다. 준석의 얼굴에 잔잔한 경련이 일어난다. 모두들 어찌 할 바를 몰라 허둥대는데 준석이 차례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눈다. 영감과 덩치 크고 어려 보이는 녀석 하나는 울음까지 터트린다.

136. INT. 고속도로-DAY

상택이 차를 운전하고 그 옆에 중호가 앉아있다. 둘이서 묵묵히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다. 켜놓은 라디오에서 이종환과 최유라의 쾌활한 웃음 소리가 흘러나온다.

137. INT. 감방안-DAY

몇몇의 죄수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카메라가 유리 대신 굵은 쇠창살이 있는 창으로 이동하면 밝은 햇살이 비치는 턱에 투박하고 조그만 나무인형 네 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138. INT. 교수대로 향하는 길-DAY

준석의 양 옆구리에 교도관들의 손이 끼워 진 채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이때 카메라는 시선이 앞 쪽으로만 고정되어 걸어가는 준석의 얼굴을 CU로 잡은 채 스태디캠으로 따라간다. 준석의 얼굴은 죽음에 대한 공포의 기색이 역력하다. 교수대가 있는 곳이 준석의 시선에 들어 온다. 그러더니 이내 준석의 얼굴에 파르르 경련이 일어난다. 교수대가 있는 곳이 차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준석의 불안한 눈동자가 안정 될 줄을 모르는데 눈 앞에 펼쳐진 교수대와 땅 사이에서 뭔가 파란 선 같은 것이 꿈뜰거리기 시작한다. 준석의 미간 사이에 주름이 생긴다. 준석의 눈에 보이는 그 파란 선이 약간 굵어 졌는가 싶더니 그 사이에서 하얀색의 포말이 일기 시작한다. 준석의 눈이 마치 아련한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포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교수대가 있던 전방은 풍경은 차츰 조그만 바닷가의 예쁜 풍경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준석의 입가에 미소가 인다. 조그만 바다의 파도가 넘실거려 왔다가 포말로 변하며 마치 준석에게 다가오는 것 처럼 보인다. 준석의 표정이 점차 밝아진다. 그 바다에 떠 있는 커다랗고 까만 튜브 위에 앉아 있는 네 꼬마 녀석들의 모습이 보인다. 마침내 준석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서린다.

139. EXT. 조그만 바닷가-DAY(EPILOGUE)

조그만 바닷가에 녀석들이 탄 커다란 튜브가 보인다. 해가 떨어지는 하늘을 쳐다보는 준석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분좋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아련한 세상을 보는 듯 참으로 행복한 표정이 된다. 넷이서 잠시동안 아무말 없이 앉아있는 동안 대형튜브도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서쪽으로 지는 해가 더욱 녀석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인다. 다들 놀기가 지친 듯 그냥 튜브 위에 가만히 앉아 있다. 상택이 자신의 팔을 뒤로하여 가볍게 물장구를 쳐본다. 동수는 고개를 돌려 바다끝을 바라본다. 중호는 튜브의 길게 튀어나온 공기 주입구 꼭지를 만지작 거리다가 고추를 잡듯 손에 쥐어서 딸딸이 치듯 흉내를 낸다. 다들 키들 거린다.

중호
상택아! 니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헤엄치기
시합하믄 누가 이기겠노?

상택
조오련.

중호
(동수와 준석을 쳐다보며)
그 봐라.

준석
아이다. 거북이가 물속에서는 얼마나 빠른데...거북이가 이긴다.

중호
물 속 말고 물 위에서.

동수

임마! 니가 아까는 물 속에서라고 했다 아이가?

중호
내가? 내가 언제?

동수
와~ 새끼 진짜 꼬름하네...

상택
야! 우리 큰일 났다. 너무 멀리 온 거 같다. 도로 나가자.

녀석들이 해변가를 쳐다보자 멀리 떨어져 아득하다.

준석
그래. 쫌 있으믄 물 들어 올지도 모르는데...

모두
그래..그래..나가자...

녀석들이 모두 튜브에서 내려와서는 양쪽 손으로 튜브를 잡고는 모두 발을 퐁당거려 대기 시작한다. 해가 지는 쪽을 배경으로 녀석들을 잡고 있던 카메라가 물속으로 차츰 들어간다. 녀석들이 발로 물을 차서 만드는 물보라가 화면 가득 하더니 녀석들이 멀어짐에 따라 차츰 차츰 사라진다.

SLOW FADE OUT

무지 화면에 음악과 함께 엔딩크레딧이 올라온다.

- THE END -